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 경 선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리듬타악기양상블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공격성 및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202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유 지 혜

리듬타악기양상블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공격성 및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강 경 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음악치료학과

유 지 혜

# 인 준 서

유지혜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9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는 리듬타악기양상블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공격성과 자기조절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충청남도 소재의 S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 9명을 선정하였으며, 음악치료는 2019년 8월 19일부터 2019년 10월 10일까지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주 2회 45분씩, 총 15회기에 걸쳐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하여 교사용 아동 공격성 검사, 초등학생용 공격성 검사, 자기조절능력 검사를 프로그램 사전·사후에 실시하였다. 아동의 공격성 행동 변화를 확인하고자 음악치료 프로그램 중재 이전, 중재 기간, 종결 이후에 아동의 행동을 촬영하여 관찰자 1명과 함께 사건 기록법으로 아동의 행동을 기록하였고 각 행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Wilcoxon 대응표본 부호순위 검정(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질적인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 종결 이후에 대상자들의 경험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위요인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리듬타악기양상블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전체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며( $p < .01$ ), 공격성 전체점수도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 $p < .01$ ).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공격성 행동의 평균 횟수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 $p < .01$ ).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은 리듬타악기양상블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조절능력 요인 중

‘긍정적인 자기인식’, ‘긍정적인 자기표현’, ‘유대감 및 협동심’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격성 요인 중 ‘인내심’, ‘올바른 방향의 스트레스 해소’를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리듬타악기앙상블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키며 이는 공격성 감소에 효과적인 중재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5
<b>II. 이론적 배경</b> .....	7
1.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 .....	7
1)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개념 및 현황 .....	7
2)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심리적 특성 .....	9
(1)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공격성 .....	9
(2)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	10
(3) 공격성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	12
2. 리듬타악기양상블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 .....	13
1) 리듬타악기양상블의 개념 및 구성 .....	13
2) 집단 음악치료 .....	14
3) 공격성 감소와 자기조절 향상을 위한 리듬타악기양상블 음악치료 ..	15
<b>III. 연구 방법</b> .....	19
1. 연구 대상 .....	19
2. 측정 도구 .....	20
1) 교사용 아동 공격성 검사 .....	20

2) 공격성 행동 관찰 및 자료 수집 .....	21
3) 초등학생용 공격성 검사 .....	22
4) 자기조절능력 검사 .....	22
3. 연구 설계 .....	23
4. 연구 절차 .....	24
1) 행동 관찰 분석 .....	24
2) 사전 검사 .....	24
3) 사후 검사 .....	24
4) 프로그램 절차 .....	25
5. 리듬타악기양상블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 .....	26
1) 음악치료 프로그램 단계별 목표 .....	26
2) 음악치료 프로그램 각 회기별 활동내용 .....	27
6. 자료 분석 .....	36
<b>IV. 연구 결과</b> .....	<b>37</b>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7
2.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연구 결과 .....	38
3.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공격성 연구 결과 .....	40
1) 초등학생용 공격성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결과 .....	40
2) 교사용 아동 공격성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결과 .....	42
3) 공격성 문제 횟수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결과 .....	44
4. 질적 분석 .....	50
<b>V. 결론</b> .....	<b>55</b>
1. 결론 및 논의 .....	55

2. 제언 ..... 57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 III-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9
<표 III-2> 교사용 아동 공격성 검사 하위영역과 문항 구성 .....	20
<표 III-3> 공격성 관찰 행동 조작적 정의 .....	21
<표 III-4> 초등학생용 공격성 검사 하위영역과 문항 구성 .....	22
<표 III-5> 자기조절능력 검사 하위영역과 문항 구성 .....	23
<표 III-6>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 .....	23
<표 III-7> 프로그램 한 회기 구성 .....	25
<표 III-8> 리듬타악기양상블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 단계별 구성	26
<표 III-9> 각 음악치료 활동 내용 및 치료적 논거 .....	30
<표 III-10> 각 회기별 사용노래 및 치료적 논거 .....	34
<표 IV-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8
<표 IV-2>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Wilcoxon 대응표본 부호순위 검정 결과 ..	38
<표 IV-3> 공격성 검사에 대한 Wilcoxon 대응표본 부호순위 검정 결과 ...	40
<표 IV-4> 교사용 아동 공격성 검사에 대한 Wilcoxon 대응표본 부호순위 검 정 결과 .....	42
<표 IV-5> 관찰 행동에 대한 Wilcoxon 대응표본 부호순위 검정 결과 .....	45
<표 IV-6> 긍정적인 자기인식 .....	51
<표 IV-7> 긍정적인 자기표현 .....	52
<표 IV-8> 유대감 및 협동심 .....	53
<표 IV-9> 인내심 .....	54
<표 IV-10> 올바른 방향의 스트레스 해소 .....	54

## 그림 목 차

<그림 IV-1> 자기조절능력 하위영역 사전·사후 평균점수 .....	39
<그림 IV-2> 자기조절능력 사전·사후 평균점수 .....	40
<그림 IV-3> 공격성 하위영역 사전·사후 평균점수 .....	41
<그림 IV-4> 공격성 사전·사후 평균점수 .....	42
<그림 IV-5> 교사용 아동 공격성 하위 영역 사전·사후 평균점수 .....	43
<그림 IV-6> 교사용 아동 공격성 검사 사전·사후 평균점수 .....	44
<그림 IV-7> 문제행동의 회기별 변화에 대한 평균값 .....	46
<그림 IV-8> 연구대상자 A의 행동 관찰회기 변화 .....	47
<그림 IV-9> 연구대상자 B의 행동 관찰회기 변화 .....	47
<그림 IV-10> 연구대상자 C의 행동 관찰회기 변화 .....	47
<그림 IV-11> 연구대상자 D의 행동 관찰회기 변화 .....	48
<그림 IV-12> 연구대상자 E의 행동 관찰회기 변화 .....	48
<그림 IV-13> 연구대상자 F의 행동 관찰회기 변화 .....	48
<그림 IV-14> 연구대상자 G의 행동 관찰회기 변화 .....	49
<그림 IV-15> 연구대상자 H의 행동 관찰회기 변화 .....	49
<그림 IV-16> 연구대상자 I의 행동 관찰회기 변화 .....	49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는 전통적 가족의 가치관이 약화되면서 핵가족, 1인 가구, 조손가족, 한부모,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다(우미향, 2009). 특히 부모의 이혼, 가출, 별거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 현상이 늘어나면서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가족부(2015)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중에서도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이 2010년 11.62%, 2014년 12.89%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한부모 가족 10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장명선, 2016). 더욱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진선남, 2013).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족의 부모들은 생계유지, 양육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자녀에게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지 못한다(홍순혜, 2004; 김경우, 2012; 최윤정, 2019).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의 초등학생 자녀 45%가 학교 후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하였다(여성가족부, 2018). 서혜전(2012)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부모의 방치 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의 학업성취도,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공격성은 높다고 한다. 김지연과 남은영(2011)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태도는 아동에게 불안과 긴장감을 주며 이로 인해 자기조절능력이 낮아지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공격적 대처 행동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들은 부모의 폭언, 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모습을 모방하므로 관계에 있어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한다(김선이,

2005).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취약성에서 비롯되는 주양육자의 부적절한 양육태도와 자원의 부족은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과 이러한 환경에서 자란 아동에게 문제행동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선숙, 박호준, 2019).

특히 아동의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충동적으로 일어나는데(성상희, 홍창희, 김귀애, 2014), 이러한 행동은 자기조절 능력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다(Gottfredson & Hirschi, 1990).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의 경우,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 스마트폰 및 게임에 중독되기 쉽고, 자아존중감이 결여될 수 있으며, 비행, 음주 및 흡연 등의 행동뿐 아니라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김미선, 2017; 박수정, 김도연, 2018; 송민영, 박현선, 2017; 이경혜, 2018; Bandura, 1973). 지속적으로 아동의 충동적인 행동이 방치될 경우, 아동들은 문제 상황을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에서 자신과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형성하게 되어 타인을 향해 공격적으로 대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홍은경, 2014; 황혜진, 2018). 이에 저소득층 아동들의 스트레스, 문제 상황에 관련된 사회적, 감정적 행동을 다루기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

공격적인 행동을 발생시키는 즉각적인 만족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자기조절능력이 필요하다. 자기조절능력이란 정서와 인지 조절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외부의 간섭 없이도 자신의 행동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문제 행동에 따른 부적절한 행동을 스스로 억제하여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사회적인 능력을 말한다(박혜경, 2002; 은혁기, 1999; Bronson, 2000). 노덕효와 이숙(2010)은 저소득층 아동의 행동문제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기조절능력을 보았으며,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한 경우 충동적이거나 주의 통제력의 부족으로 아동이 행동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저

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경우 양부모를 둔 아동보다 부모와 의사소통이 부족하고 양육 환경이 취약하여 자기조절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자기조절 능력이 높은 아동의 경우 충동적인 문제행동이 잘 나타나지 않으며 또래와의 유능성이 높게 나타나 공격적인 행동이 적고 사회적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숙연, 2008). 장현희(2013)는 자기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수행한 저소득층 아동에게서 공격성이 감소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자기조절능력 향상이 공격성 감소에 효과적임을 입증한 연구이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아동이 충동적으로 일으키는 공격적인 행동을 위해서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다루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아동들은 청소년이나 성인에 비해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야 하는 인지 학습 위주의 활동을 어려워한다. 이에 아동들의 공격성, 분노 표출, 적대감이나 억압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치료적 접근이 중요하다(김혜원, 2015; 이주영, 2008; Gaston, 1968). 아동의 충동성 및 공격성 감소, 자기조절능력향상을 위한 치료적 접근 방법으로 미술치료(김지연, 2017; 황혜진, 2018), 놀이치료(조미정, 2012), 인지행동치료(김선민, 김종남, 2016), 문학치료(최은주, 김춘경, 2011; 김혜경, 2012), 집단 상담(김문호, 은혁기, 2016; 박미나, 은혁기, 2013)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들은 집단 음악치료 안에서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불안, 분노 등의 억압된 에너지를 비언어적으로 표출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아동들의 정서를 환기시켜 방어적인 태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이주영, 2008; 정현주, 2005). 특히 음악은 개인에서보다 그룹 안에서 더 큰 치료적 효과를 가진다(Gaston, 1968). 음악치료의 중재 방법 중 앙상블 음악 만들기 활동은 혼자만의 연주가 아닌 함께 어우러져 협동하는 과정으로,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러운 상호 교류를 증진시키며 공감과 수용을 경험하도록

듣는다(김선하, 2009). 그룹원과 함께 하는 음악활동은 평소 감정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아동에게 자신의 욕구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경험은 아동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긍정적인 정서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다(김지은, 2016; 양예슬, 문소영, 2015).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아동의 경우, 자신의 내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회피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타악기 연주 활동은 아동이 경험하였던 부정적인 상황을 상징화할 수 있도록 도우며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신체적으로 표출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Fonagy, 2000). Michael(2003)은 타악기 연주 활동이 공격적인 청소년들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언어를 우회하여 집단 응집력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룹 안에서 흥미를 느낀다고 하였으며, Weisz와 Hawley(2002)는 타악기가 분노에 의해 유발된 충동성을 함축시키고 인지적 자기 조절능력을 증가시켜 불완전하게 형성된 인지능력과 지적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타악기를 활용한 음악치료 접근의 효과를 입증한 선행연구에서 김수지(2012)는 드럼 연주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교 5학년 저소득층 소외 아동들을 대상으로 내적, 심미적 경험을 자극하여 긍정적인 감각 피드백을 유도하였다. 김지현(2017)은 결손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가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과 그룹원과의 토의 후 합주하는 과정 안에서 또래와의 유대감과 소속감이 향상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김선하(2009)의 연구에서는 리듬악기합주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김선영(2009)은 타악기 즉흥연주가 아동의 공격성, 부적응 행동문제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로 표현할 수 있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 더불어 행동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아동의 문제 행동의 변화를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찰이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들이 리듬타악기양상블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관계 안에서 긍정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향상된 자기조절능력이 아동의 공격성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리듬타악기양상블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 9명의 공격성 감소 및 자기조절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알아보려고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리듬타악기양상블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를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1) 리듬타악기양상블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를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리듬타악기양상블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를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공격성 행동 횟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리듬타악기양상불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리듬타악기양상불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에 참여한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은 공격성과 자기조절능력에 대해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

#### 1)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개념 및 현황

한부모 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에 따라 18세 미만의 자녀 혹은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를 포함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저소득층이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물적·경제적 자원이 적은 계층을 의미한다.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규정한 법률에 의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자신의 소득, 재산, 근로 능력만으로는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이다. 차상위계층이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지만, 고정재산 또는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비수급 빈곤층을 포함한다(조혜영, 김세은, 2019; 여성가족부, 2019).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의하면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219만원으로, 전체 총소득에서 건강보험료, 이자 비용을 제외한 가구가처분소득 평균인 389만원의 겨우 절반을 넘는 56%의 수준이다(여성가족부 2018). 따라서 한부모 가족의 가장 역할을 하는 부모는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한부모 가족에서 취업 중인 부모는 84.2%로 높은 비율이지만, 그중 41.2%는 고용 안정성이 낮고 근로·사업 소득이 적은 일을 하는 워킹푸어(working poor)의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와 충분치 못한 휴일을 경험하게 하므로 가

정 들봄에 어려움을 초래한다(여성가족부, 2018).

한부모 가족이 된 부모들은 생계를 위한 근로, 가사일, 부모 역할, 자녀 양육 등을 혼자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을 가진다. 김현숙(2016)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기능의 결핍은 부모가 자녀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주원인이 된다고 한다.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 자녀들은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방과후교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53.9%,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은 5.7%로 집계된다. 한부모 가족의 초등학생 자녀 45.1%와 중학생 이상 청소년 자녀 54.3%는 하교 후에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는 경우가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하였다(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17; 여성가족부, 2018).

한부모 가족의 양육자는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필요한 욕구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 교육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박가화, 이지민, 2014). 실제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들은 우울, 공격성, 거짓말, 가출 비행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와 학업에서 낮은 성취율, 또래 관계 어려움, 무단결석 등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보인다(박현정, 홍나미, 정익중, 2014). 이에 현재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의 학습과 정서적 측면을 지원하는 사회적 서비스와 양육비, 교육비, 생활 보조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이진숙, 2017). 하지만, 정서적 측면에 대한 서비스는 아동기 발달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으로 만들어진 정책으로 인해 미흡한 상황이다(최윤진, 2015). 따라서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예방을 위해 아동 문제를 일으키는 사회구조와 환경적 요소뿐만 아니라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의 발달단계와 개인적 특성, 심리적 원인 등에 대해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한미현, 2012).

## 2)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심리적 특성

### (1)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공격성

공격성이란 상대방에게 적대적 행동을 취하고 공격을 하며 파괴적 행동을 하는 성질이다(표준국어대사전). 즉, 공격성의 개념은 외부로 표출되는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인 외현적 공격성과 외부로 직접 표출되지는 않지만, 사회적 관계에서 의도적인 조작을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에 상처와 해를 입히는 관계적 공격성을 포함한다(김지현, 2006; Crick, 1996).

공격성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개인적 요인은 건강하지 못한 자아 확립 및 주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 등이 있고,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공감 결핍, 부족한 대인관계 경험 등이 있다(최유경, 2008). 대부분의 대인관계가 부모와 이루어지는 성장기 아동의 경우, 공격성은 개인적인 요인보다 부모의 초기 양육 태도와 정서적 반응과 같은 환경적 요인에서 기인한다. 이정혜(2004)는 부적절한 양육 환경이 아동의 공격성을 부정적으로 발달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했다.

경제적으로 빈곤하며, 자녀 돌봄 시간이 적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공격성은 높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심한 체벌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의 부정적 공격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Conger et al., 1994; Knutson, Degarmo, & Reid, 2004). 윤수경(2011)의 연구에서 방과 후 아동의 방치 시간이 아동의 공격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고, Vafa와 Ismail(2009)은 양부모 가족보다 한부모 가족 아동의 방임 정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격성은 긍정적으로 발달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건강한 경쟁심이 되지만 부정적으로 발달하게 되면 반항적이고 적대적인 행동을 보이며 더 나아

가 범죄, 사회 부적응 등을 야기 시킬 수 있다(김정원, 김현주, 2007). 부정적으로 발달한 공격성은 즉각적인 자기만족을 위해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충동적 공격성향 아동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의 결여로 대인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집중력 저하, 낮은 학업성취도와 같은 이차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Crick, Casas, & Mosher, 1997; Warman & Cohen, 2000). 따라서 향후 공격성이 높은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의 아동이 청소년기와 성인이 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범죄 및 반사회적인 행동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 (2)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자기조절의 개념은 학자들의 이론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용어들과 혼용이 되는 문제점이 있다. 자기조절과 유사한 자기통제는 자신의 부정적 행동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최단비, 김경성, 2016). 자기조절은 자기통제의 상위개념으로 부정적 행동을 억제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바른 행동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다(이슬아, 권석만, 2017; 허정경, 2003). 즉, 자기조절능력이란 외부자극에 대한 감정과 욕구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을 스스로 억제하고 수정하여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개인적인 목표와 일치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은혁기, 1999;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자기조절능력은 학습되는 것으로 환경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다(박지현, 송하나, 2010).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지향할수록 향상되는데, 이는 부모의 초기 양육 태도에서 비롯된다(Brody & Xiaoja, 2001; Finkel & Campbell, 2011).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는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자기 결정성에 영향을 미쳐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증진으로 이어지게 하며(허정경, 2007; 최해주, 문수백, 2012), 부모와의 긍정적 정서표현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이영주, 2007).

일반 중산층 가정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부모들은 환경적인 스트레스, 심리적 박탈감, 절망감 등을 경험한다(최영미, 이희영, 2017). 김은설과 도남희(2012)는 경제적으로 빈곤한 부모는 심리적으로 높은 우울과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지시적, 방임적, 비일관적인 훈육방식과 같은 부정적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송효현, 정다우리, 2014; Elder & Caspi, 1988). 주동범, 배홍, 최동규, 박정희(2015)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초기 청소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 교육적, 사회적 돌봄 소외로 인한 부족한 인내와 자기조절을 보인다고 발표했다.

대중매체에 쉽게 노출되는 아동 청소년에 있어 자기조절능력의 결여는 중독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혼자 보내는 시간에 아동들은 텔레비전,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등으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이때 반복적인 욕구조절에 대한 실패는 중독에 이르게 한다(장혜인, 박형인, 2015). 박창선(2017)은 아동의 스마트폰 중독이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요인에 영향을 받는 한편,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증진은 중독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음을 검증하였다. 그러므로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 활동을 위한 자기조절능력 증진은 중요하다.

### (3) 공격성과 자기조절능력과의 관계

대부분의 공격적인 행동들은 외부자극에 의해 충동적으로 일어나며, 대부분 즉각적인 자기만족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자기만족을 지연시키고 외부자극에 대해 적절한 행동 양식으로 수정하여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절하는 능력이 자기조절 능력이다(지선례, 이숙, 2012). 안관수와 황재연(2017)은 자기조절 능력이 뛰어나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낮고, 높은 의지력을 보여 대인관계 형성과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자기조절능력은 외부자극에 대한 공격성을 억제하고 적절한 행동으로 수정하여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보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공격성 감소를 위한 자기조절능력 증진에 관한 연구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성상희, 홍창희, 김귀애(2014)는 Gottfredson과 Hirschi(1990)의 자기통제 이론을 기초로 하여 개발한 자기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공격성과 충동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입증하였다. 홍주연(2017)은 집단게임 놀이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의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이는 또래 관계에서의 공격적인 행동 감소로 이어졌다. 이은숙, 김홍렬(2010)의 연구에서는 결손가정 아동들이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공격적 행동이 감소하고 자기조절능력, 사회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기조절능력의 증진은 곧, 공격성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홍상환, 박우람, 2016).

## 2. 리듬타악기양상불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

### 1) 리듬타악기양상불의 개념 및 구성

타악기는 소리를 내기 위해 흔들거나, 두드리면서 타격을 필요로 하는 악기를 의미한다(Matney, 2004). 타악기는 쉽게 연주가 가능하여 아동, 성인, 노인 등 다양한 연령층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즉흥적으로 연주할 수 있다(정현주, 2005; Alvin, 1977). 연주 방법이 쉽고 접근이 용이한 타악기의 특성으로 인해 타악기는 치료목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치료적 목적의 타악기 사용은 1802년 심리학자 Jean-Marc에 의해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Matney, 2016). 타악기는 일정하게 지속 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평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치료적 기능이 있다(Bruscia, 1987/1998). 타악기의 반복되는 강약의 리듬과 박자는 신체와 정서를 안정시키고 빠르고 불규칙한 리듬은 음악적 에너지를 높인다. 따라서 연구대상자의 감각을 자극하고, 역동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정현주, 2011; Boxil, 1985/1988).

타악기는 재질, 모양, 크기, 음색 등이 모두 다르며 크게 고정 음정이 없는 무울 타악기와 정확한 음역대를 가지는 유울 타악기로 나뉜다. 고정 음정이 없는 타악기는 박자와 리듬 등 다양한 효과음을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다. 무울 타악기는 북 종류의 타악기인 드럼, 탬버린, 탐탐 등과(김지희, 2019; 이아련, 2009) 흔들거나 굽어서 소리를 내는 타악기인 마라카스, 셰이커, 레인스틱, 귀로, 카바사, 비블라슬랩(vibraslap) 등이 있다(김지희, 2019). 정확한 음정의 높낮이를 가지고 연주하는 유울 타악기는 핸드벨, 실로폰, 톤차임 등이 있다(김종인, 2014; 전훈, 2018). 이러한 타악기들은 공통적으로 화음 합주 또는 멜로디 합주에서 많이 쓰인다(조수진, 2016). 이처럼 다양한

질감과 음색이 있는 타악기는 연구대상자가 자신의 감정을 의도에 맞게 선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가 된다(강경선, 2009).

리듬타악기앙상블에서는 여러 다양한 소리들의 타악기 조합을 활용한다. 하나의 악기를 연주할 때 보다, 두 가지 이상의 타악기를 연주할 때 악기별 음색 차이는 청각적으로 풍성한 소리를 만들어 준다. 또한 합주 중 솔로 연주를 하는 구간에서 음색의 차이는 개별적 악기의 소리를 더 돋보이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채로운 소리의 집합은 연구대상자의 흥미를 높이고 몰입을 유도하여, 보다 좋은 치료적 효과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Matney, 2004).

## 2) 집단 음악치료

집단 음악치료는 구성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통합시켜 다양한 음악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조경애, 강경선, 2014). 함께 음악을 만들어 연주하는 것은 개인과 집단의 응집력을 높이고, 다양한 음악활동 안에서 나타나는 그룹 역동성은 상호 간의 지지와 긍정적인 상호 교류를 가능하게 한다(김지현, 2017; 조경애, 강경선, 2014). 그룹과 함께 하는 음악치료는 아동이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 안정적인 울타리를 제공한다(Montello & Coons, 1998). 집단 음악치료에서 그룹원들의 표현 모델링은 혼자서 표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어색함을 가진 개인의 참여 동기를 자극하기도 한다. 또한 그룹 안에서 연구대상자는 그룹원들의 피드백을 관찰하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탐색할 수 있다(조경애, 강경선, 2014).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룹원들은 서로에 대한 다른 행동 양식, 사고, 감정 등을 배우면서 자신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으며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Yalom, 1985/2008). 아동들은 협동과정을 통해

자신의 주어진 역할에 대해 인식하고 타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김선하(2009)는 연구대상자가 합주 안에서 음악적인 성취감을 경험할 때, 연구대상자의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개선시키고, 그룹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했다.

이처럼 집단 음악치료는 음악적 경험 안에서 올바른 자기표현 능력을 향상시켜 타인과 자연스러운 상호 교류를 이끌어낸다. 집단 음악치료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신의 충동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긍정적인 정서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다(양예슬, 문소영, 2015; 김지은, 2016). 특히 아동, 청소년기는 또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사회적 기술이 발달이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그룹원과 함께 하는 음악 활동은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상호 교류를 증진 시켜 사회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기에 집단 음악치료는 개별적인 음악치료보다 더 큰 치료적 효과를 줄 수 있다(Cercone & Waack, 2012).

### 3) 공격성 감소와 자기조절 향상을 위한 리듬타악기양상블 음악치료

리듬타악기양상블은 모방 연주, 즉흥연주, 연주 토의하기 등을 포함한다. 리듬패턴을 만들어 연주하는 과정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탐색하고 반영하게 하며, 부정적 에너지를 표출하게 한다. 아동들의 내재되어 있는 감정과 정서를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도록 도와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은혜, 2015; 김수지, 2012). 이때, 개인이 창작한 리듬 패턴을 그룹원들이 함께 모방하여 연주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데 수용적이며 안전한 환경이라는 인식을 느끼게 하며, 보다 덜 위협적인 형식으로의 표현을 시도하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권주희, 2012). 또한, 이는 모두가 동일 리듬 패턴을 연주하면서, 공통된 표현에

집중하게 함으로서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김지현, 2016; 김선하, 2009; 김선영, 2009; 이지은, 문소영, 2017).

리듬 모방 연주를 통한 표현과 수용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연습은,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기존의 음악을 제공해 그룹원들이 하나의 공통된 음악적 주제를 가지고, 그에 어울릴만한 악기를 고르며, 어떠한 연주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토의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음악의 사용은 음악이 내포하고 있는 리듬, 멜로디, 조화, 템포, 음색 등의 주요 요소들을 공통적으로 느낌으로서 동일 주제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흥미를 높여주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다(Pellitteri, 2000). 개인은 그룹과 함께 토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협력하고 조율하고 수용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게 된다(박선영, 2018).

이러한 긍정적인 상호작용 연습은 즉흥연주 활동에서 그룹 연주의 역동을 이끌고 조절하게 하는 리더 역할과 그 리더의 지휘를 따르는 그룹원의 역할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고민하게 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리더는 즉흥연주에서 타악기의 음색을 직접 탐색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 자신만의 템포와 리듬 패턴을 즉흥적으로 만들어 낸다. 새로운 창작 리듬을 만들 때마다 리더는 그룹원 개개인에게 자신이 창작한 즉흥리듬 연주 방법과 연주 구간을 알려주고, 그대로 연주지시를 따를 수 있도록 유도한다. 리더로서 음악을 창작하고 앙상블을 만드는 작업은 자기표현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 가치를 발견할 수 있으며, 긍정적 요구와 수용을 통한 협동에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Davis, Gfeller, & Thaut, 1999/2002). 또한 타인과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경험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김영은, 2016; 이나경, 2011). 리더의 연주 모델링에 따라 연주를 실행하는 그

그룹원은 자신의 주어진 연주 역할에 집중하고 수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리더의 비언어적 생각과 감정이 포함된 즉흥창작 리듬을 집중하여 들으면서, 그룹원들은 타인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적절한 반응을 제공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타인과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공감은 타인의 입장과 감정을 함께 인지적으로 느끼고, 함께 표현해주는 것으로 동일한 정서를 경험하는 것이다(김혜리, 손정우, 엄진섭, 정명숙, 박민, 박영옥 등, 2012). 그룹원들은 타인의 소리를 함께 경청하고 수용하면서 그룹 전체의 균형에 따라 자신의 연주 소리를 조절하고 변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그룹 안에서 그룹원들이 또래와의 상호 관계 안에서 타인을 인식하고 생각과 정서에 따른 공감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관찰과 수정을 반복하도록 한다(주빛나, 2014). 따라서 리듬타악기 앙상블 음악치료는 아동이 자신을 탐색하고 문제행동을 인지하여 행동을 수정하고 통제하여 목표를 이루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충동적인 아동의 경우, 자신의 내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회피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타악기 연주 활동은 아동의 자기표현을 상징화하는 것을 촉진 시키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한 객관화를 가능하게 한다(Gfeller, 2000). 타악기를 활용한 중재의 치료적 가치는 선행연구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타악기 자체는 공격성향을 보이는 아동의 음악적 수준에 따라 에너지를 몰입하여 표출하는데 집중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도구이며(한지현, 2005), 연주과정은 미적 체험, 정서적 환기, 새로운 자기발견을 하게 한다(김수지, 2012). 또한 타악기 합주에서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상호작용 경험은 자기조절능력, 사회성,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등에 자연스럽게 개인적 성장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양미나(2009)는 타악기 연주를 중재로,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한 중학생이 자기조절에서 보이는 인내심, 집중력, 신중함, 사회성에 긍정적인 향상이 있었

음을 보고하였다. 김지현(2017)은 결손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가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성을 입증하였고 또래와의 유대감과 소속감이 향상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김선영(2009)은 타악기 즉흥 연주가 아동의 공격성, 부적응 행동문제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위 선행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검사와 중재시 행동 관찰을 통한 비교분석으로 아동의 공격성 변화를 측정하고 그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였다. 하지만 앞선 연구들은 신뢰하기 어려운 주관식 자기보고식 검사를 사용했다는 점과 중재 전, 후 관찰을 통한 객관적인 관찰과 분석이 없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리듬타악기양상블 중재가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증진시키고 공격성을 감소하는데 어떠한 치료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관찰과 분석을 하고자 한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충청남도 소재의 S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로부터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 9명의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을 추천받았으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연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표 Ⅲ-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	성별	나이(세)	가족 구성	가족 특성
A	남	13	조모, 부	저소득층 한부모
B	남	12	부, 여동생	저소득층 한부모
C	여	12	부, 오빠	저소득층 한부모
D	남	13	모	저소득층 한부모
E	남	11	부, 형	기초수급 한부모
F	남	13	부, 남동생	기초수급 한부모
G	여	11	조모, 모	저소득층 한부모
H	여	13	부, 오빠	차상위계층 한부모
I	남	13	부, 여동생, 남동생	차상위계층 한부모

## 2. 측정 도구

### 1) 교사용 아동 공격성 검사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공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Frodi, Macaulay와 Thome(1977)이 공격적 행동을 내용에 따라 분류한 것과 Wiggins와 Winder(1961)의 공격성 행동목록을 기초로 하여 수정·보완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이영애와 이준석(2002)의 교사용 아동 공격성 검사를 측정 도구로 사용하였다. 교사용 아동 공격성 검사는 대인 공격성, 언어 공격성, 대물 공격성의 3가지 영역을 포함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로 제시되어 있는 평정형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애나(2007)의 연구에서 보고된 Cronbach'  $\alpha$  계수는 대인 공격성 .90, 언어 공격성 .85, 대물 공격성 .92로 확인되었다. 문항의 구성 및 문항 수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교사용 아동 공격성 검사 하위영역과 문항 구성

하위요인	문항 수	문항 번호
대인 공격성	4	1, 2, 3, 4,
언어 공격성	4	5, 6, 7, 8
대물 공격성	4	9, 10, 11, 12

## 2) 공격성 행동 관찰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공격성 행동 횟수를 관찰하고 해당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음악치료 프로그램 중재 이전 4회, 중재 기간 4회, 종결 이후 4회 총 12회 동안 연구대상자의 자유놀이 시간을 촬영하였다. 12회 모두 모든 연구대상자들을 동시에 촬영하였으며, 촬영한 영상은 해당 지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로 근무 중인 관찰자 1명과 함께 사건 기록법을 사용하여 각 연구대상자의 문제 행동 횟수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찰한 연구대상자의 공격성 행동은 김해숙과 황매향(2009)의 연구에서 입증한 초등학교 문제 행동 체크리스트 항목 중 지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와 의논하고 선정하여 공격성 행동을 조작적 정의하였으며, 이는 <표 III-3>과 같다. 관찰자 간 신뢰도 공식은 아래의 식과 같다.

$$\text{관찰자간신뢰도} = \frac{\text{행동발생횟수(작은수)}}{\text{행동발생횟수(큰수)}} \times 100$$

<표 III-3> 공격성 관찰 행동 조작적 정의

공격성 관찰 행동 조작적 정의	
대인공격성	다른 아동을 특별한 이유 없이 치거나 건드린다.
대물공격성	책상이나 의자 등을 손 또는 발로 세게 던지거나 찬다.
언어공격성	모욕적인 말로 다른 아동을 괴롭힌다.
충동성	화가 나면 욕을 하거나 때린다.

### 3) 초등학생용 공격성 검사

본 연구에서는 이은아(2011)가 개발한 초등학생용 공격성 검사를 사용하여 아동의 공격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초등학생용 공격성 검사는 행동적 공격성, 적대감, 분노감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로 제시되어있는 평정형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의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검사 도구에 대한 전체 신뢰도 Cronbach'  $\alpha$  계수는 .97로 나타났다. 이은아(2011)의 연구에서 보고된 각 하위요인의 Cronbach'  $\alpha$  계수는 행동적 공격성 .92, 적대감 .90, 분노감 .85로 하위요인 모두 신뢰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문항의 구성 및 문항 수는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초등학생용 공격성 검사 하위영역과 문항 구성

하위영역	문항 수	문항 번호
행동적 공격성	1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적대감	8	17, 18, 19, 20, 21, 22, 23, 24
분노감	6	25, 26, 27, 28, 29, 30

### 4) 자기조절능력 검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Kendall과 Wilcox(1979)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기조절능력 척도(Self-Control Rating Scale; SCRS)를 이순규(1995)가 표준화하고 김문신(2003)이 아동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자기 보고식 척도로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기조절능력 검사는 33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부터 ‘항상 그렇다(5점)’로 제시되어있는 평정형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총점이 높아질수록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검사 도구에 대한 전체 신뢰도 Cronbach'  $\alpha$  계수는 .86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구성 및 문항 수는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자기조절능력 검사 하위영역과 문항 구성

하위영역	문항 수	문항 번호
자기조절	10	1, 2*, 3, 4, 5, 6, 7*, 8, 9, 10*
충동성	13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자기통제 및 충동성 복합요인	6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역채점 문항

### 3.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리듬타악기양상블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공격성과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의 설계모형을 사용하였다.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는 <표 III-6>처럼 연구대상자에게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음악치료 중재 전과 종결 후에 실시하였다.

<표 III-6> 단일집단 사전·사후 설계

집단	사전검사	음악치료	사후검사
실험집단	O <sub>1</sub>	X	O <sub>2</sub>

## 4. 연구 절차

### 1) 행동 관찰 분석

본 연구는 리듬타악기양상불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가 연구대상자의 공격성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음악치료 프로그램 중재 이전, 중재 기간, 종결 이후에 변화된 공격성 행동을 관찰하였다. 전체 연구대상자들에게 30분 동안의 자유놀이 시간을 동시에 제공하였으며 이를 비디오 녹화하였다. 이후 해당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로 근무 중인 관찰자 1명과 각 연구대상자들의 행동을 기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조작적 정의한 공격성 행동의 횟수를 측정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 2) 사전 검사

본 연구의 사전 검사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비롯하여 교사용 아동 공격성 검사, 초등학생용 공격성 검사 및 자기조절능력 검사로, 음악치료 프로그램 중재 이전에 실시하였다.

### 3) 사후 검사

사후 검사는 사전 검사와 동일한 방법과 측정 도구로 진행되었으며, 음악치료 프로그램 종결 이후에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프로그램 종결 이후, 연구대상자의 음악치료 경험에 대한 개별 인터뷰를 시행하여 각 연구대상자가 경험한 변화된 자신의 공격성 및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 4) 프로그램 절차

본 연구는 충청남도 소재의 S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 9명 대상으로 2019년 8월 19일부터 2019년 10월 10일까지 주 2회 45분씩, 총 15회기 동안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15회기에 걸친 리듬타악기양상블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 회기 구성은 다음 <표 III-7>과 같다.

<표 III-7> 프로그램 한 회기 구성

프로그램 단계	소요시간	활동 내용
도입	5분	인사 노래
워밍업	5분	음악 게임
본 활동	30분	리듬타악기를 활용한 음악치료 (모방 연주, 즉흥연주, 연주 토의하기, 멜로디 타악기 연주하기, 악보 구성하기)
마무리	5분	마치는 노래

프로그램은 각 회기 45분으로 진행되었으며 매 회기의 시작은 인사노래를 시작으로 간단한 음악게임으로 워밍업을 활동을 하였다. 주 활동에서는 리듬타악기를 활용한 악기 연주로 모방 연주, 즉흥연주, 연주 토의하기 등의 음악 활동을 하였다. 마무리에는 활동에 대한 느낌을 나누고 정리하며 마침 노래를 부른 후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 5. 리듬타악기양상블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

### 1) 음악치료 프로그램 단계별 목표

본 연구의 리듬타악기양상블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정성혜(2010)의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과 이정자(2012)의 자기조절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토대로 인지조절과 정서조절의 요소를 포함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연구 목적에 맞게 이를 재구성하였다. 해당 프로그램은 친밀한 관계 형성, 자기 탐색 및 자기이해, 부정적 감정 표출, 자기인식 및 정서조절, 타인인식, 협동과 문제 해결, 자기조절을 통한 긍정적 정서표현, 자기조절능력 향상과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구성하였다. 리듬타악기양상블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구성은 <표 III-8>과 같다.

<표 III-8> 리듬타악기양상블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 단계별 구성

단계	회기	목표	활동
초기	1	친밀한 관계 형성	자기소개 및 별명 짓기
	2		음악 게임 활동과 악기 탐색
중기 I	3	자기 탐색 및 자기 이해	다양한 감정 카드 활용한 음악 게임 및 타악기연주
	4		연주 토의하기 및 타악기 연주하기
	5	부정적 감정 표출	붐웨커, 리듬 타악기 연주하기
	6		타악기 즉흥연주(드럼서클)
7	자기인식 및 정서조절	타악기 리듬 모방 연주	
8		음악 토의하고 타악기 연주하기	

	9	타인인식	뽀빠이 상상블 만들기
	10	협동과 문제 해결	타악기 즉흥연주
중기	11		핸드벨 상상블 만들기
II	12	자기조절을 통한 긍정적 정서표현	음악 토의하기 멜로디, 리듬타악기 연주하기
	13		멜로디 타악기와 리듬 타악기 콜라보 상상블 만들기 I
	14		멜로디 타악기와 리듬 타악기 콜라보 상상블 만들기 II
종결	15	자기조절능력 향상과 긍정적 상호작용	리듬타악기상상블 발표회

## 2) 음악치료 프로그램 각 회기별 활동내용

리듬타악기상상블 중심 음악치료에 사용한 방법으로는 음악리듬 게임, 모방 연주, 즉흥연주, 멜로디 타악기 연주하기, 악보 구성하여 만들기, 연주 토의하기를 활용하였다. 도입 단계 1-2회기는 라포 형성 단계로 치료사와 그룹원들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한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1회기에는 나를 소개하고 별명을 짓는 활동으로 ‘뽀콩’ 노래의 가사에 맞추어 자신의 별명을 만들고 그룹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으로 구성하였고 다양한 타악기를 소개하고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2회기는 그룹원들의 친밀감을 형성을 위해 음악게임 활동으로 음악활동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기존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응용하여 음표로 바꾸어 음표와 박자에 대해 이해하고 타악기로 박자를 정확하게 맞추는 음악게임 활동을 통해 그룹원들의 흥미를 유발하였다.

3회기에서는 자기 탐색 및 자기 이해를 목표로 하여 활동을 구성하였다. 다양한 감정 카드를 활용한 음악 게임 활동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그룹원들

이 맞추는 것으로 자신에 표현에 서툰 그룹원들이 쉽게 감정카드를 가지고 쉽게 표현 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모습을 악기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연주하는 시간을 가졌다. 4회기는 자신의 현재 모습을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스케치북 - 토이’ 노래를 토의하고 자신이 그리고 싶은 것을 가사로 만들어 직접 불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이 만든 가사를 불러본 후 후렴에서는 자유롭게 타악기를 연주하도록 하였다. 5회기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룹 구성원들은 봄웨커의 두드림으로 분노를 단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단계별로 리듬을 창작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봄웨커 리듬에 다른 그룹 구성원들은 다른 리듬 타악기로 봄웨커 연주의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6회기에서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보는 활동으로 그룹 구성원들이 타악기만을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리듬이나 몸동작을 활용하여 즉흥으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고 그룹 구성원들이 함께 모방하는 활동으로 타인과 교류 하는 시간을 가졌다.

7회기에서는 자기인식 및 정서조절을 목표로 하여 상대방의 입장과 나의 입장을 이해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리듬 모방 연주를 통해 그룹 구성원이 함께 토의하고 연주하는 시간을 가졌다. 구성원들은 ‘The lion sleeps tonight - Billy Eichner’ 음악을 감상 후 토의한 후 음악에 어울리는 악기, 리듬, 템포 등을 정하여 음악을 모방하면서 연주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8회기에서는 그룹 안에서 주의 집중력을 향상을 통한 자기조절하기를 목표로 하여 활동을 구성하였다. 그룹 구성원들은 ‘요술피리’ 2악장 ‘Marche’의 음악에 대해 토의한 후 음악의 리듬을 신체리듬으로 표현하였다. 그 후 치료사의 플루트 연주와 그룹 구성원들의 타악기 연주로 합주하는 시간을 가졌다.

9회기는 타인인식을 목표로 하여 또래관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할 수 있

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북웨커의 간단한 연주 방법으로 주어진 색깔 악보를 보고 '우리는 모두 친구 - 방용석' 곡을 연주하고 연주한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북웨커를 가지고 자신의 리듬을 만들어보고 자유롭게 표현하여 연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10회기와 12회기에서는 협동과 문제해결을 중심으로 타인과 관계 안에서 행동을 조절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하였다. 10회기에는 타악기 즉흥연주로 드럼서클의 방식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돌아가면서 자신이 직접 Stop & Go를 외치며 자신이 지휘자가 되어보고 연주자가 되어 연주한 후 활동에 대한 느낌을 나누었다.

11회기는 자기조절을 통한 문제해결을 목표로 멜로디 타악기 연주하기 활동인 '도레미 송' 노래에 핸드벨 연주하는 활동을 가졌다. 도레미 송은 누구나 친숙한 곡으로 그룹원들이 직접 색깔 악보를 만들고 핸드벨 앙상블을 만들어 곡을 완성하였다. 핸드벨 앙상블에서는 코드 화음을 넣어 화음을 연주하였다. 12회기는 자기조절을 통한 긍정적 정서표현으로 자기효능감과 성취감을 목표로 구성하였다. 'My favorite things - Rodgers'를 음악을 토의하는 과정과 그룹원들이 멜로디 타악기에는 색깔악보를 리듬타악기에는 악기 악보를 만들고 연주하는 시간을 가졌다.

13회기, 14회기에는 자기조절을 통한 협동과 긍정적인 변화 인식을 목표로 구성하였다. 멜로디 타악기와 리듬타악기앙상블 콜라보 연주로 팀을 나누어 악기 구성, 탐색 등의 토의를 거쳐 즉흥적인 창작 리듬을 개발하는 시간을 나누었다. 14회기에는 팀이 하나로 모여서 13회기에 창작한 리듬을 나누고 멜로디 타악기와 리듬타악기가 나오는 구간을 정하여 멜로디와 기본리듬의 앙상블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15회기는 종결 단계로 그룹원들이 만들었던 타악기 앙상블 음악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종결하였다. 각 회기 별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활동 내용과 치료적 근거와 각 회기

사용노래와 치료적 근거는 다음 <표 Ⅲ-9>, <표 Ⅲ-10>과 같다.

<표 Ⅲ-9> 각 음악치료 활동 내용 및 치료적 논거

회기	활동 내용	치료적 논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치료 프로그램 소개하기</li> <li>• 창작 동요 ‘땅콩’의 가사에 맞추어 자신의 별명 지어 노래하기</li> <li>• 별명에 리듬을 붙여 악기 연주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목적을 인식하고, 프로그램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다.</li> <li>• 자신의 별명에 자유롭게 리듬을 붙여 악기로 연주하는 활동은 악기 연주 활동에 흥미를 부여하고, 다른 그룹원의 연주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리듬을 경험할 수 있다.</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 게임 활동하기</li> <li>&lt;무궁화 음표가 피었습니다&gt;</li> <li>• 악기 탐색 및 자유롭게 연주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무궁화 음표가 피었습니다&gt; 음악 게임은 기존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응용한 음악 게임으로, 음악 활동에 대한 거부감을 감소시키고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수 있다.</li> <li>• 음악 게임 안에서 악기 연주는 그룹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그룹원들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다.</li> <li>• 다양한 재질, 크기, 소리 등의 타악기를 탐색하고 연주함에 따라 악기에 대한 거부감 없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 카드를 활용한 타악기 연주하기</li> <li>• &lt;분노&gt;의 감정을 타악기로 연주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 카드를 활용한 음악 게임 활동은 자신의 현재 감정에 해당하는 카드를 뽑은 후 악기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음악 게임 활동은 자신의 현재의 감정을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다.</li> <li>• 화나는 상황을 상기한 이후, 분노의 감정을 타악기로 연주하는 활동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탐색하고 부정적 에너지를 표출하게 한다.</li> </ul>

<p>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래 가사 토의하기</li> <li>• ‘그리고 싶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li> <li>• 토의한 내용을 개사하여 노래 부르고 가사 후렴구에는 타악기 연주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사를 토의하는 활동은 자신의 내면을 언어화시켜 현재 상황을 인식하도록 돕는다.</li> <li>•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면적인 부분은 타악기로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가사로 만들어진 내용을 토대로 내면의 필요와 결핍을 확인할 수 있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준다.</li> </ul>
<p>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웨커를 활용한 자신만의 리듬 창작 및 모방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웨커는 무지개 색의 튜브로, 각각의 색마다 고유한 음정을 가지고 있어 음악적 능력이 없어도 그룹원과 상호교류하며 연주할 수 있다.</li> <li>• 북웨커는 어느 곳이나 두드려서 연주가 가능하며, 자신의 내면과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리듬을 만들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최은아, 2012).</li> <li>• 자신이 창작한 리듬에 그룹원들이 함께 리듬을 모방하여 연주하는 활동은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데 수용적이며 안정한 환경으로 인식을 높일 수 있다.</li> </ul>
<p>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토의하기</li> <li>• 분노의 단계별 리듬 창작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룹원과 함께 자신의 감정과 단점을 토의하고 리듬 창작의 토의하는 과정은 그룹원과 서로 지지하는 역할과 타인을 수용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권주희, 2012).</li> <li>• 분노의 단계별 리듬을 창작하고 주고받기 하는 연주 활동은 상호 간의 적극적인 지지와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연주의 시작과 멈춤, 템포 변화를 통해 타인에게 집중할 수 있으며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 토의하기</li> <li>• 곡에 어울리는 분위기 연출해보고 모방하여 연주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의 음악적 주제를 가지고 악기를 선택하고 구성할지에 대한 토의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쉽게 표현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 토의하기</li> <li>• 신체리듬으로 표현 후 악기 구성하여 타악기 앙상블 연주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룹과 함께 토의하고 조율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타인에 대해 수용하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박선영, 2018).</li> <li>• 모두가 동일한 패턴 리듬으로 연주하면서 공통된 표현에 집중하게 함으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다(김지현, 2016).</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웨커 앙상블 만들기</li> <li>• 색깔 악보 보고 연주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웨커의 간단한 연주 방법과 색깔 악보를 통한 연주는 그룹원들이 하나의 곡을 완성키는 과정에서 협동심을 배울 수 있으며 곡을 완성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li> <li>• 악보의 음마다 색이 다르며 서로의 소리를 듣고 자신이 맡음을 연주할 수 있어 책임감과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악기 즉흥연주(드럼서클)하기</li> <li>• GO &amp; STOP 지휘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럼서클 활동은 음악적 기술 보다는 즉흥적으로 자유롭게 연주가 가능하고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쉽게 표현할 수 있어 연구대상자의 에너지와 감정을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정중현, 2016).</li> <li>• 자신이 직접 지휘하거나 연주자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활동의 참여를 유도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레미 송’ 노래 부르기</li> <li>• 그룹원과 색깔 악보 만들기</li> <li>• 핸드벨 앙상블 연주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핸드벨은 멜로디 타악기로 연주 기법이 간단하고 화음 연주하는 데 효과적이다. 접근성이 용이하여 그룹원들과 소외되지 않고 합주의 경험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li> <li>• 그룹원들끼리 직접 색깔악보를 만드는 과정은 공동 작업을 통해 동질감을 느끼</li> </ul>

		<p>게 되고 타인을 수용하고 이해하면서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 제작한 색깔 악보를 보면서 핸드벨 연주를 수행하는 과정은 그룹원에게 집중할 수 있으면 자기조절을 통한 자기표현을 돕는다.</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 토의하기</li> <li>• 멜로디, 리듬 타악기 연주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룹과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고 협력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는 경험에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박선영, 2018).</li> <li>• 무용 타악기와 멜로디 타악기의 콜라보를 연주하는 앙상블을 통해 그룹원과 음악적으로 소통하게 하고 상호 교류 증진시켜 또래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li> </ul>
13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듬타악기 앙상블 연주 토의하기</li> <li>• 리듬타악기 앙상블 구성하고 타악기 연습하기</li> <li>• 리듬타악기 앙상블 연주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룹 악기연주 활동의 리더가 되어 그룹원들을 리듬 연주로 이끌어가는 경험은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자기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li> <li>• 그룹원들의 긍정적 요구와 수용은 그룹 안에서 협동을 만들어 내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이나경, 2011).</li> <li>• 리듬타악기 앙상블은 그룹원과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서로의 소리를 듣고 조절하며 자신과 타인의 의견을 조율하고 조절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정현주, 김동민, 2010).</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듬타악기 앙상블 발표회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룹원들과 만들었던 리듬타악기 앙상블을 연주하는 발표회를 통해서 함께 이루었다는 성취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li> <li>• 함께 음악적 경험을 하고 서로에 대한 감정과 표현들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또래 관계에 긍정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김지현, 2016).</li> </ul>

<표 III-10> 각 회기별 사용노래 및 치료적 논거

회기	사용노래	치료적 논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땅콩 - 전선 (F장조, 4/4박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작 동요 ‘땅콩’은 키가 작은 모습을 땅콩으로 비유하여 활동의 대상자들에게 창의력과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래이다.</li> <li>• 땅콩의 가사는 노랫말에 따라 음정이 높고 낮게, 음가가 길거나 짧게 사용되어 노래를 유쾌하고 생동감 있게 부를 수 있다.</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케치북 - 토이 (E<sup>b</sup>장조, 4/4박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노래의 가사의 노랫말은 ‘느끼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민 하지마’ 등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가사를 담고 있어 대상자들에게 자신의 현재 상황을 수용하고 지금 나에게 집중하고 표현할 수 있다.</li> </ul>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lion sleeps tonight - Billy Eichner, Seth Rogen (G장조, 4/4박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곡은 영화 ‘라이언킹’ 주제곡으로 많이 알려져 누구에게나 익숙하고 친근하여 그룹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li> <li>• 반복적인 당김음과 붓점 리듬은 아프리카의 정글 분위기의 특징을 살리며, 그룹원들이 몸동작, 타악기 연주에 긴장감을 줄이고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음악 활동에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li> </ul>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he Nutcracker 2악장 ‘Marche’- Tchaikovsky (G장조, 4/4박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레곡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중 2악장은 행진곡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음악의 분위기가 경쾌하고 흥겹다.</li> <li>• 특정 리듬이 반복적으로 표현이 되고 스타카토의 짧은 음과 긴 음의 단위가 지속적이고 가볍게 연주 할 수 있다.</li> <li>• 다이내믹과 액센트의 표현은 그룹원들이 동작과 악기를 연주하는 것에 움직임을 자극하여 음악을 표현하는데 집중할 수 있으며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li> </ul>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는 모두 친구 - 방용석 (C장조, 4/4박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노래는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 OST로 잘 알려져 있으며, 몬스터가 나오는 친숙한 가사와 멜로디는 그룹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음악적 구조를 쉽게 익힐 수 있다.</li> <li>반복적인 선율을 통해 대상자들이 일정하게 박자와 리듬을 익히며, 자신이 연주하는 부분을 예측하여 연주 할 수 있다.</li> </ul>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레미 송 - Richard Rodgers (C장조, 2/4박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주제곡으로 다장조의 스케일의 7개의 음이 가사에 포함 되어 쉽게 익힐 수 있다.</li> <li>I →V도의 화성 진행과 상행하는 선율을 통해 차례대로 음을 연주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리듬은 그룹원들이 친근함을 느끼고 기억하기 쉬어 멜로디연주, 화음 연주에 폭넓게 연주할 수 있다.</li> </ul>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y favorite things - Richard Rodgers (e단조, 3/4박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곡은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에 포함하는 OST 중 하나이다. 3/4의 4분음표의 일정한 박자와 리듬은 안정적으로 연주할 수 있다.</li> <li>단조의 노래로 시작하지만 장조의 화음으로 끝이 나며, 반복되는 선율과 리듬은 부드럽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나타내어 대상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표현을 유도할 수 있다.</li> </ul>

## 6. 자료 분석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표본 수가 적어 비모수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음악치료 중재 사전 사후의 공격성과 자기조절능력을 Wilcoxon 대응표본 부호순위 검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공격성의 하위영역에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악치료 중재 전, 후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실험집단 아동 9명의 행동관찰 분석을 위해 음악치료 중재 전, 후 자유놀이 시간을 비디오 촬영하여 공격성을 나타내는 행동의 횟수를 사건 기록법으로 관찰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의 질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음악치료 중재 종결 이후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여 녹음하고 해당 내용을 분석하였다.

##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리듬타악기양상불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공격성 및 자기조절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에게 음악치료 중재 사전, 사후에 교사용 공격성 검사, 초등학생용 공격성 검사, 자기조절능력 검사를 시행하였고, 공격성 행동 관찰 변화를 측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공격성 행동 관찰 수집을 위해 자유 놀이시간에 비디오 촬영하여 사건 기록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데이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9명의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6명(66.7%), 여자 3명(33.3%)이며, 연령은 11세 3명(33.3%), 12세 2명(22.2%), 13세 4명(44.4%)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가족 구성 중 형제 관계는 외동 3명(33.3%), 첫째 3명(33.3%), 막내 3명(33.3%)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구성으로는 부자 가정이 7명(77.8%), 모자 가정이 2명(22.2%)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명)	비율(%)
성별	남	6	66.7
	여	3	33.3
나이	11세	3	33.3
	12세	2	22.2
	13세	4	44.4
형제 순위	외동	3	33.3
	첫째	3	33.3
	막내	3	33.3
가족 관계	부자(父子) 가정	7	77.8
	모자(母子) 가정	2	22.2

## 2.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실시한 리듬타악기양상불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9명의 연구대상자들에게 실시한 자기조절능력 검사 결과는 다음 <표 IV-2>, <그림 IV-1>, <그림 IV-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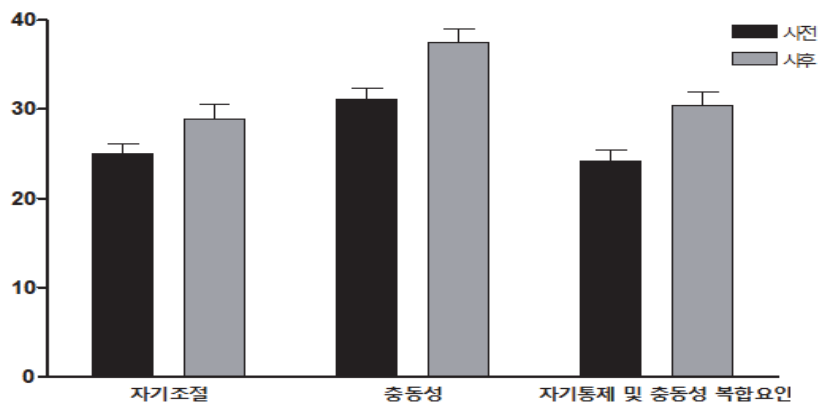
<표 IV-2>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Wilcoxon 대응표본 부호순위 검정 결과

하위영역	사전		사후		Z	p
	M	SD	M	SD		
자기조절	25.00	3.42	28.89	5.06	-2.44	.015*
충동성	31.11	3.55	37.44	4.61	-2.67	.008**
자기통제 및 충동성 복합요인	24.11	3.72	30.44	4.28	-2.54	.011*
총계	80.22	9.07	96.78	13.18	-2.67	.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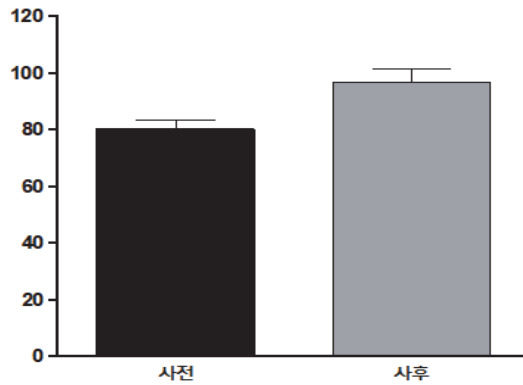
\* $p < .05$ , \*\* $p < .01$

리듬타악기양상블 중심의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을 효과적으로 증진 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Wilcoxon 대응표본 부호순위 검정을 진행하였다. 자기조절능력에 총점의 평균은 <표 IV-2>에 제시된 것과 같이 음악치료 중재 사전, 사후에 80.22에서 96.7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자기조절능력 총점에 대한 평균은 <표 IV-2>와 <그림 IV-2>와 같다.

자기조절 능력 하위영역 중 자기조절에 대한 평균은 25.00에서 28.8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충동성 영역에 대한 평균은 사전, 사후에 31.11에서 37.4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자기통제 및 충동성 복합요인에 대한 평균은 사전과 사후에 24.11에서 30.4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각 하위영역에 대한 평균은 <표 IV-2>와 <그림 IV-1>과 같다.



<그림 IV-1> 자기조절능력 하위영역 사전·사후 평균점수



<그림 IV-2> 자기조절능력 사전·사후 평균점수

### 3.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공격성 연구 결과

#### 1) 초등학생용 공격성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결과

본 연구에서 실시한 리듬타악기양상블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9명의 연구대상자들에게 실시한 공격성 행동 검사결과는 다음 <표 IV-3>, <그림 IV-3>, <그림 IV-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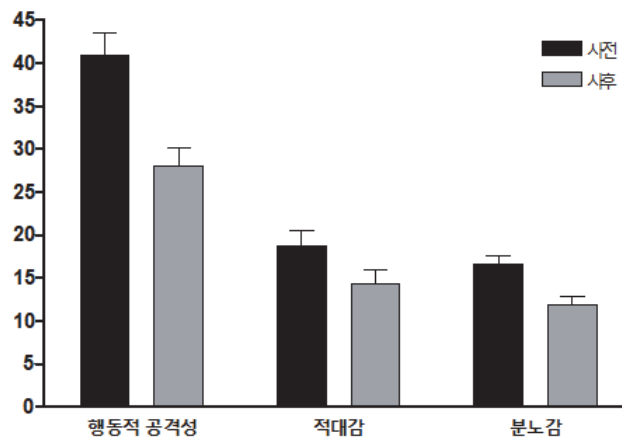
<표 IV-3> 공격성에 대한 Wilcoxon 대응표본 부호순위 검정 결과

하위영역	사전		사후		Z	p
	M	SD	M	SD		
행동적공격성	40.89	7.70	28.00	6.56	-2.67	.008**
적대감	18.78	5.17	12.44	3.91	-2.68	.007**
분노감	16.56	3.09	11.22	3.15	-2.68	.007**
총계	76.22	14.34	51.67	12.44	-2.67	.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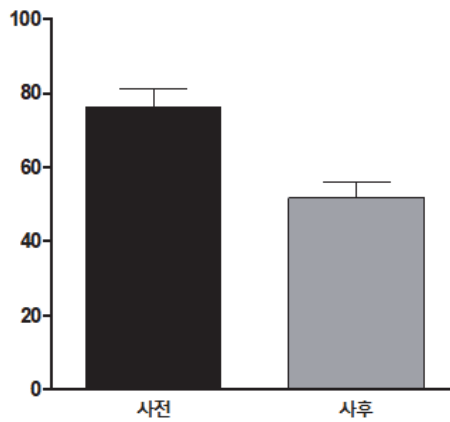
\*\* $p < .01$

리듬타악기양상블 중심의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지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Wilcoxon 대응표본 부호순위 검정을 진행하였다. <표 IV-3>에 나타난 것과 같이 리듬타악기양상블 음악치료 중재 전, 후 연구대상자의 평균점수는 76.22에서 51.6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공격성에 대한 총점의 평균은 <표 IV-3>, <그림 IV-4>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공격성에 대한 하위영역 중 행동적 공격성에 대한 점수 변화는 <표 IV-3>에 나타나 있다. 연구대상자의 행동적 공격성에 대한 평균 점수는 음악치료 중재 전, 후로 40.89에서 28.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하위영역 중 적대감에 대한 연구대상자의 평균점수는 <표 IV-3>에서와 같이 18.78에서 12.44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마지막 하위영역으로 연구대상자의 분노감에 대한 평균점수는 16.56에서 11.2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각 하위영역에 대한 평균점수는 <표 IV-3>와 <그림 IV-3>과 같다.



<그림 IV-3> 공격성 하위영역 사전·사후 평균점수



<그림 IV-4> 공격성 사전·사후 평균점수

2) 교사용 아동 공격성 검사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 결과

본 연구에서 실시한 리듬타악기양상블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9명의 대상자를 교사가 관찰한 공격성 검사결과는 다음 <표 IV-4>, <그림 IV-5>, <그림 IV-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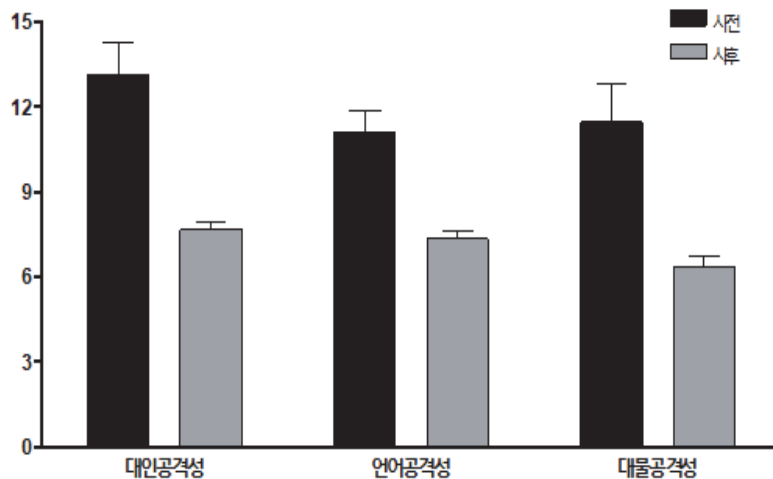
<표 IV-4> 교사용 아동 공격성 검사에 대한 Wilcoxon 대응표본 부호순위 검정 결과

하위영역	사전		사후		Z	p
	M	SD	M	SD		
대인 공격성	13.11	3.52	7.89	1.90	-2.67	.008**
언어 공격성	11.11	2.26	7.11	0.78	-2.67	.008**
대물 공격성	11.44	4.03	6.33	1.12	-2.55	.011*
총계	35.67	9.07	21.56	3.40	-2.67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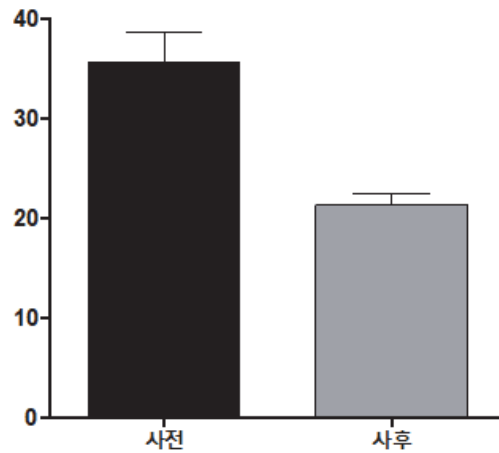
\* $p < .05$ , \*\* $p < .01$

리듬타악기양상블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음악치료 프로그램 사전, 사후 교사용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아동 공격성이 감소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Wilcoxon 대응표본 부호순위 검정을 진행하였다. <표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격성 총계의 평균은 35.67에서 21.5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공격성 총계의 평균은 <표 IV-4>, <그림 IV-6>과 같다.

교사용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아동 공격성의 하위영역 중 대인 공격성의 평균은 <표 IV-4>에 나타난 것과 같이 13.11에서 7.89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하위영역 중 언어 공격성에 대한 평균점수는 <표 IV-4>에 나타난 것과 같이 11.11에서 7.1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대물 공격성의 평균 또한 <표 IV-4>에 나타나 있으며 11.44에서 6.3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각 하위영역에 대한 평균은 <표 IV-4>, <그림 IV-5>와 같다.



<그림 IV-5> 교사용 아동 공격성 검사 하위영역 사전·사후 평균점수



<그림 IV-6> 교사용 아동 공격성 검사 사전·사후  
평균점수

### 3) 공격성 문제 횡수 사전·사후에 대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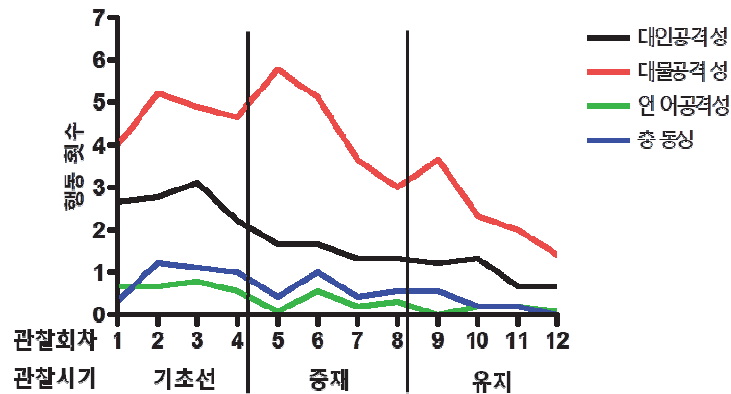
리듬타악기양상블 중심의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9명의 연구대상자의 기초선 유지단계 대해 확인하기 위해 음악치료 프로그램 중재 전과 후에 아동의 자유놀이 시간에 공격성 행동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공격성 행동에 횡수의 평균이 효과적으로 감소하는지 입증하기 위해 Wilcoxon 대응표본 부호순위 검정을 진행하였다. 아동의 공격성 행동 횡수의 사전 사후 변화는 다음<표 IV-5>와 같다.

<표 IV-5> 관찰 행동에 대한 Wilcoxon 대응표본 부호순위 검정 결과

하위영역	사전		사후		Z	p
	M	SD	M	SD		
대인공격성	2.69	2.62	0.97	1.25	-2.67	.008**
대물공격성	4.69	2.88	2.36	2.31	-2.67	.008**
언어공격성	1.03	0.26	0.11	0.13	-2.72	.007**
충동성	1.31	0.33	0.25	0.22	-2.71	.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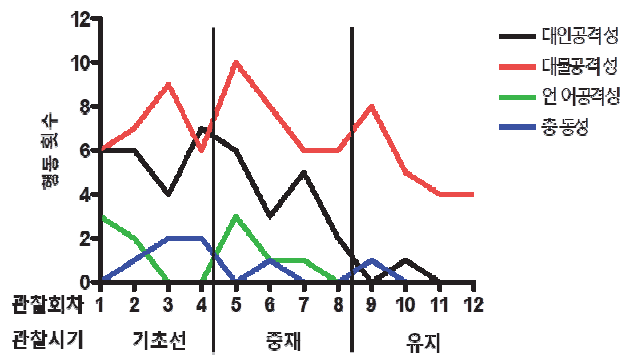
\*\*  $p < .01$

공격성을 나타내는 행동 횟수 중 대인에 대한 공격성으로 다른 아동을 특별한 이유 없이 치거나 건드리는 행동의 평균 횟수는 전과 후에 2.69회에서 0.97회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대물 공격성을 나타내는 물건을 발로 세게 던지거나 차는 행동의 평균 횟수는 4.69회에서 2.36회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말로 심한 욕이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 행동인 언어공격성의 평균 횟수는 음악치료 전, 후로 1.03회에서 0.11회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쉽게 흥분하거나 화를 내는 충동성의 문제행동의 평균 횟수는 1.31회에서 0.25회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각 공격성 행동 횟수의 평균은 <표 IV-5>와 <그림 IV-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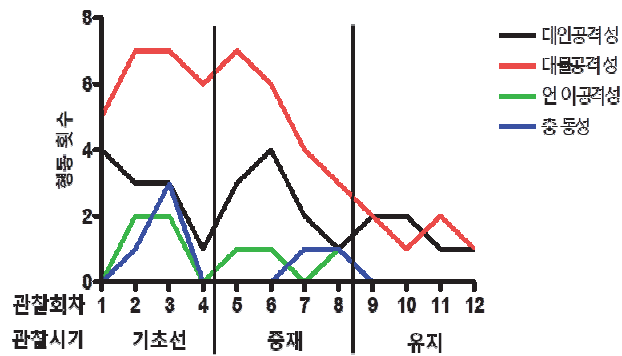


<그림 IV-7> 문제행동의 회기별 변화에 대한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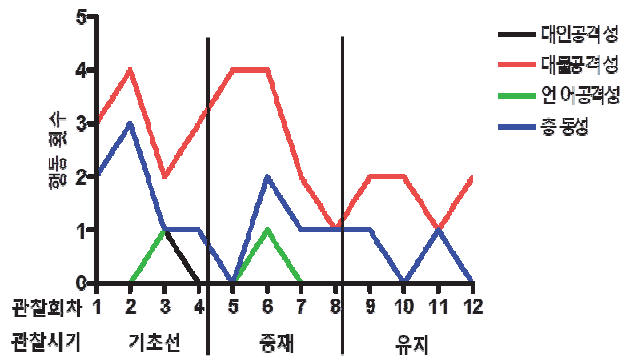
음악치료 중재 전과 후에 개별적으로 연구대상자의 공격성 행동 변화를 관찰한 횟수는 <그림 IV-7>과 같다. <그림 IV-7>에 나타난 것과 같이, 리듬타악기양상블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연구대상자의 공격성 행동 횟수가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행동 유형별로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대물공격성에 해당하는 ‘책상이나 의자 등을 손 또는 발로 세계 던지거나 찬다’ 행동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대인공격성에 해당하는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아동을 툭툭 치거나 건드린다’ 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언어공격성과 충동성에 해당하는 모욕적인 말과 흥분을 나타내는 행동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행동 횟수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다음 <그림 IV-8>, <그림 IV-9>, <그림 IV-10>, <그림 IV-11>, <그림 IV-12>, <그림 IV-13>, <그림 IV-14>, <그림 IV-15>, <그림 IV-16>은 연구대상자 개인별 행동 횟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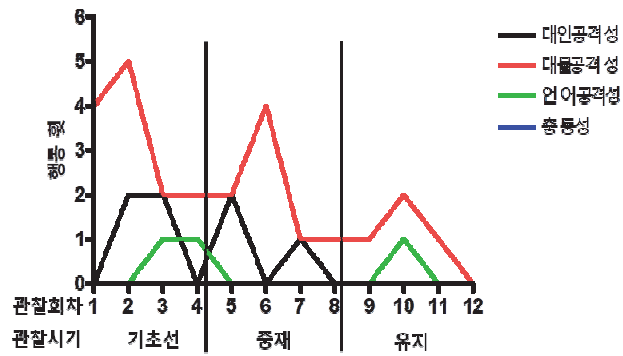
<그림 IV-8> 연구대상자 A의 행동 관찰회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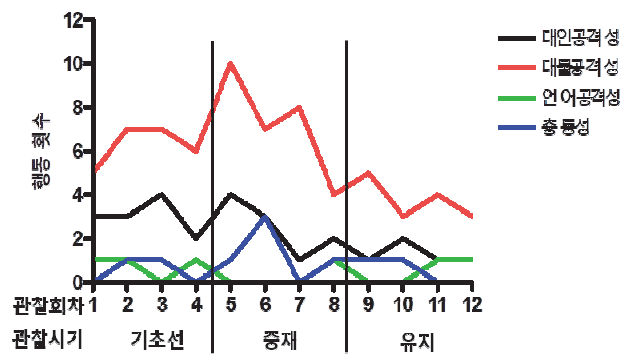
<그림 IV-9> 연구대상자 B의 행동 관찰회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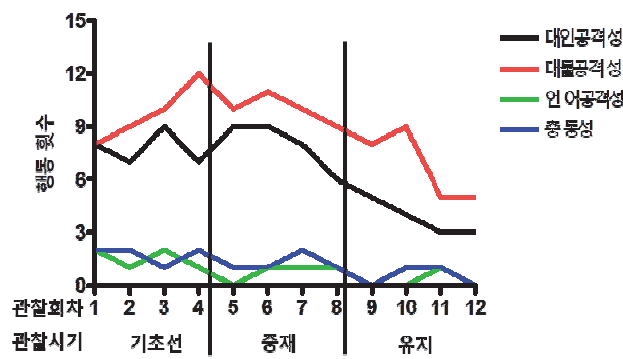
<그림 IV-10> 연구대상자 C의 행동 관찰회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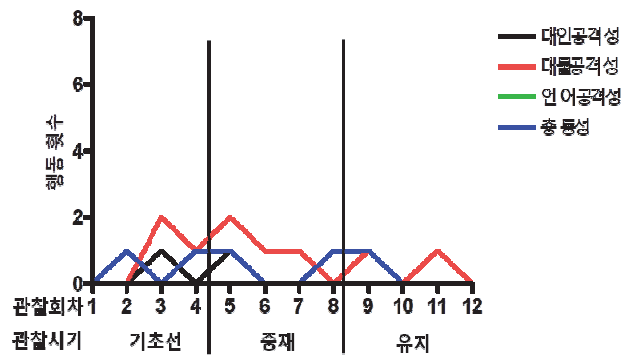
<그림 IV-11> 연구대상자 D의 행동 관찰회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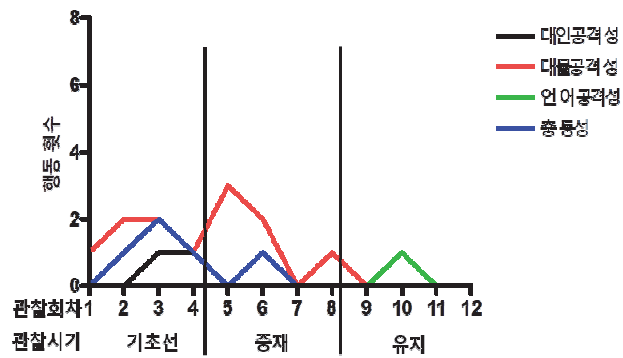
<그림 IV-12> 연구대상자 E의 행동 관찰회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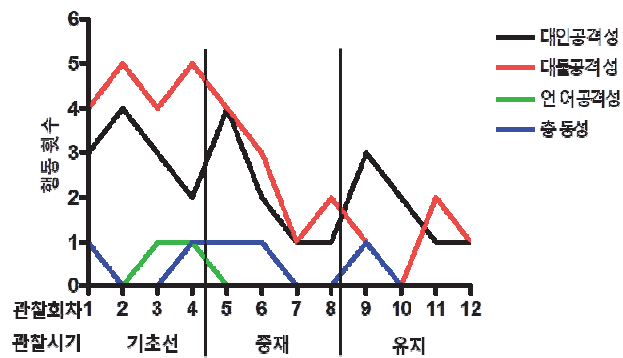
<그림 IV-13> 연구대상자 F의 행동 관찰회기 변화



<그림 IV-14> 연구대상자 G의 행동 관찰회기 변화



<그림 IV-15> 연구대상자 H의 행동 관찰회기 변화



<그림 IV-16> 연구대상자 I의 행동 관찰회기 변화

#### 4. 질적 분석

리듬타악기양상불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의 질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음악치료 프로그램 중재 후 인터뷰를 실시하여 녹음하였다. 녹음한 내용을 분석하여 연구대상자들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얻은 경험과 자기변화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공격성 감소를 위한 자기조절 능력에는 긍정적인 자기인식, 긍정적인 자기표현, 유대감 및 협동심, 인내심, 긍정적 방향의 스트레스 해소 총 5가지 하위요인이 도출되었다. 질적 분석을 통해 도출한 5가지 하위요인은 자기조절 능력의 하위요인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체화되었다(성다겸, 김춘경, 2015).

##### 1) 자기조절능력과 공격성 감소 대한 경험 및 변화

리듬타악기양상불 중심의 음악치료에 참여한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질적 변화는 ‘긍정적인 자기인식’, ‘긍정적인 자기표현’, ‘협동심 및 유대감’으로 나타났다. 공격성에 대한 부분은 인내심, 스트레스 해소를 나타냈다. 연구대상자들은 즉흥연주, 모방 연주, 멜로디 타악기 연주, 음악 토의하기 등의 음악 활동이 의미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한 대인관계가 향상되었다고 표현하였다. 이 외에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인내심이 향상되어 충동적인 행동이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관한 참여자들의 응답은 다음 <표 IV-6>, <표 IV-7>, <표 IV-8>, <표 IV-9>, <표 IV-10>과 같다.

(1) 긍정적인 자기인식

리듬타악기앙상블 음악치료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은 리듬 만들기, 모방 연주, 합주 등의 경험이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리듬을 만들고 타인이 모델링하는 과정을 통해 리드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즉각적인 성취감을 얻는 과정이 개인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보다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가지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V-6> 긍정적인 자기인식

긍정적인 자기인식	연구대상자 C	“내가 만든 리듬을 다른 친구들이 따라했을 때 대장이 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막 지시하고 했을 때 대장이 된 느낌이 들었어요”
	연구대상자 G	“맨 처음에 했던 땅콩 노래가 생각나요. 좀 나를 놀리는 기분도 들었지만 가사 내용이 재밌어서 재밌게 했던 거 같아요. 안 해보던 걸 해서 새로웠어요”
	연구대상자 A	“새로운 음을 만들고 하니깐 낯할 것 같다는 성취감 같은 거랑 음악이 좋아진 것 같아요.”
	연구대상자 F	“연주 마무리할 때는 끝났다는 것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2) 긍정적인 자기표현

프로그램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은 그룹 안에서 연주를 구성해야 하는 토의과정과 리듬 모방 연주를 통한 음악적 표현과 수용, 지지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며,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리듬타악기앙상블을 만드는 경험에서 그룹원과 모델링하는 과정이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거부감 없이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고 개인의 잠재적 능력이 발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7> 긍정적인 자기표현

긍정적인 자기표현	연구대상자 G	“관중들이 나를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표현을 웃기게 했던 것 같아요. 표정 같은 거로 장난치고 싶었어요.”
	연구대상자 C	“안무가가 된 느낌이었어요. 저만의 리듬을 만들고 하니까 처음에는 생각이 안 났는데 친구들 하는 거 보고 그냥 따라 하고 저도 제 맘대로 만들었던 거 같아요.”
	연구대상자 H	“처음에는 애들이 못할 줄 알았는데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하게 되었어요”
	연구대상자 H	“혼자 하는 것은 너무 싫은데 같이 하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참여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봐서 저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연구대상자 B	“블랙잭 재밌었어요. 알록달록해서 악기가 다 해 보고 싶었어요. 처음 보는 악기들이 많아서 신기했어요.”
	연구대상자 D	“평소에도 펜비트를 하는데 악기로도 그걸 해보니까 재밌고 애들이 호응해 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 (3) 유대감 및 협동심

연구대상자들은 앙상블 만들기를 통해 타인의 악기 연주에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려는 것과 자신의 연주 순서를 기다리고 조율하는 경험이 또래관계 안에서 유대감과 협동심이 증진시킴을 보고하였다. 이는 타인의 장점과 단점들이 서로 보완되면서 서로에 대해 신뢰감을 높일 수 있으며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을 알 수 있다.

<표 IV-8> 유대감 및 협동심

유대감 및 협동심	연구대상자 H	“서로서로 지시하고 바꾸고 다른 사람의 리듬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연구대상자 D	“친구들의 성격을 본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연구대상자 I	“합주를 해보니 친화력이 늘어나고 함께 리듬을 맞춰보니까 협동심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연구대상자 H	“합주를 했는데 곡이 만들어져서 신기하고 뿌듯했어요”
	연구대상자 I	“애들이랑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연구대상자 A	“D 친구가 음악 감각이 있는 거 같아요. 드럼이랑 그런 밴드 같은 거 해보고싶어요”

#### (4) 인내심

연구대상자들은 리듬타악기 앙상블 만들기에서 실시한 연주 토의, 악기 탐색, 악기 리듬패턴 창작, 앙상블 만드는 경험들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타인을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인내심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자신이 흥미가 없거나 하기 싫은 일도 해보는 시도의 기회를 통해 나 혼자보다는 그룹원이 서로에게 지지대가 되어주었으며, 음악을 완성했을 때의 해냈다는 성취감을 통해 인내를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V-9> 인내심

인내심	연구대상자 G	“손이 아파서 힘든 건 있었는데 하고나니까 뿌듯해요.”
	연구대상자 I	“똑같이 따라 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자꾸 하다 보니 이제 잘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대상자 C	“흥미가 없거나 어려운 걸 시켰을 때 하는 게 너무 싫었는데 이제는 시켜도 그냥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연구대상자 E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좀 참고 바로 욕하지 않으려고 해요. 딱 한 번만 이지만요.”

(5) 올바른 방향의 스트레스 해소

리듬타악기양상블 중심 음악치료에 참가한 연구대상자들은 스트레스를 대처하고 화를 해소하는 대처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대부분이 붐웨커를 활용한 타악기 연주 활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 이는 자신의 상황에 때리고 부수고 싶은 충동적인 행동을 타악기의 두드리고 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올바르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10> 올바른 방향의 스트레스 해소

스트레스 해소	연구대상자 B	“붐웨커 할 때가 제일 좋아요. 스트레스가 풀렸어요. 뽕뽕뽕 텅텅텅”
	연구대상자 D	“붐웨커 할 때 개운하고 상쾌했어요. 센터에서 화나면 붐웨커 가지고 화를 식혀야겠어요. 부러질 수도 있어요.”
	연구대상자 H	“할 때 시끄러웠는데 마음대로 연주하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 있었어요.”
	연구대상자 F	“친구 때리지 않고 대신에 악기에다가 풀 수 있어서 그나마 없어진 것 같아요. 화가”

## V. 결 론

### 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리듬타악기양상불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의 향상과 공격성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리듬타악기양상불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수행한 결과,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리듬타악기양상불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음악치료에 참여한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자기조절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p < .01$ ). 자기조절능력의 단일 하위요인인 ‘자기조절’, ‘충동성’ 그리고 복합 하위요인인 ‘자기통제 및 충동성’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났다( $p < .05$ ).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리듬타악기양상불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에서 그룹원들에게 긍정적인 요구표현을 하며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를 조율해 나가는 리더 역할 경험이 자기조절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조절능력의 질적 분석을 한 결과, ‘긍정적 자기인식’, ‘긍정적 자기표현’, ‘협동심 및 유대감’이라는 3가지 요인이 나타났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들은 자신을 탐색하고 자기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타인과의 공감 경험은 아동들의 활동 참여도를 높이고 정서적 환기를 지지하였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공통된 음악적 주제에 관한 타악기 연주가 개인과 그룹원 간의 긍정적 상호교류를 통해 협력과 조율을 경험하게 하여 자기조절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한다고 보고한 서은실(2017), 김

현정(2012)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둘째, 리듬타악기양상블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공격성 감소에 효과적이다. 공격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에 실시한 교사용 아동 공격성 검사와 초등학생용 공격성 검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p < .01$ ). 또한, 공격적 행동 관찰 기록에서 중재 이전보다 중재 이후에 공격적 행동 관찰 횟수가 감소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 < .01$ ).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들이 느낀 경험과 변화에 대한 질적 분석을 한 결과, ‘인내심’, ‘올바른 방향의 스트레스 해소’라는 2가지 요인이 나타났다. 프로그램 초기에 남자 아동들은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 공격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보여 프로그램 참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중기에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악기 연주로 표현하고 그룹원과 양상블을 만드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경험하면서 중재 후기로 갈수록 공격적인 행동보다는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리듬타악기양상블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가 아동에게 외현화된 공격적 행동을 표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타악기 두드림과 같은 음악적 활동을 통한 부정적인 감정 탐색, 그리고 탐색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타악기 연주활동이 아동의 공격적 행동 감소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김선영(2009)과 한지현(2005)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리듬타악기양상블 중심의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의 공격성 감소와 자기조절능력에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성을 입증하였으며, 향후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 2. 제언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충청남도 소재의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아동 9명의 단일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통제집단과 비교집단을 두어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전체 9명의 연구 대상자들의 공격성 행동 관찰 기록이 동시에 이루어져 정확한 관찰 측정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대상자들 개개인의 관찰 행동 기초선을 확립한 이후, 공격성 검사를 실시하여 공격성 수준을 파악하는 더욱 객관적이며 정확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에서 연구대상자들의 자기조절능력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향상되었지만, 주관적인 자기 보고형 척도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는 자기조절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 도구로써 신뢰도가 높고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한 척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연구대상자들의 성별에 따른 활동량과 성향을 고려하지 않아 연구대상자들이 활동에 대해 느끼는 흥미와 참여도에 성별에 따른 차이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활동량이 많은 아동들을 나누어 팀을 선별하거나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아동의 성향 분석을 통한 적절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들의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변화가 음악 환경이 아닌 다른 외부환경에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15회기로 단기 음악치료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성을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고 증재 이후에도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장기 음악치료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이후 그 효과의 지속성에 대한 변화를 교사나 부모가 관찰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참 고 문 헌

- 강경선(2009). 표현예술치료로서 사물놀이의 활용방안 연구. **인문과학연구**, 23, 453-470.
- 고은혜(2015). 타악기 연주 중심의 음악치료가 목회자 초등학교 자녀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www.stdict.korean.go.kr](http://www.stdict.korean.go.kr)
- 권주희(2012). 타악기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가 정신분열병 환자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미치는 영향. **임상예술치료연구**, 1(-), 1-16.
- 김경우(2012). 한국 다문화 가정의 실태와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9(2), 31-60.
- 김문호, 은혁기(2016). 자기조절적 공감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공격성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초등상담연구**, 15(2), 183-200.
- 김미선(2017).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사이버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3(4), 1-20.
- 김선숙, 박호준(2019). 빈곤,가족구조와 아동 삶의 질의 관계. **사회복지연구**, 50(2), 155-178.
- 김선영(2009). 집단 음악치료가 방과 후 교실 아동의 공격성과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효과 : 즉흥연주와 난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청구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선이(2005). 연극치료가 저소득가정 아동의 사회성과 자기표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청구논문.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 김선하(2009). 리듬악기합주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1(1), 40-59.
- 김선민, 김종남(2016).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의 우울과 자동적 사고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3(1), 181-208.
- 김선하(2009). 리듬악기합주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1(1), 40-59.
- 김수지(2012). 아동의 정서행동문제를 위한 음악의 치료적 사용. **한국예술연구**, -(6), 99-116.
- 김영은(2016). 초등 고학년 위축아동의 또래 관계 향상을 위한 구조화된 그룹 타악기 연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은설, 도남희(2012). 가구소득에 따른 양육특성, 양육환경 및 아동발달의 관계: 한국아동패널연구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2012(6), 73-88.
- 김정원, 김현주(2007). 아동의 공격성과 관련변인들의 관계성 연구. **아동교육**, 16(2), 85-93.
- 김종인(2014). **음악치료 악기론**. 서울: 지식산업사.
- 김지연(2017). 집단놀이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조손가정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 및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효과. **아동가족치료연구**, 15(0), 1-15.
- 김지연, 남은영(2011).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2(5), 13-28.
- 김지은(2016). 창작 음악극을 이용한 음악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기조절 및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청구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지현(2006).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외적 요인에 대

- 한 구조 방정식 모형검증.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김지현(2017). 타악기 합주 음악치료가 결손가정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청구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지희(2019). 국내 음악치료사의 치료 세션 내 악기사용 현황.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현숙(2016).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방임적 양육태도와 정신건강의 매개효과 및 양부모가족과의 다집단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52(0), 297-331.
- 김혜경(2012).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연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 김혜리, 손정우, 엄진섭, 정명숙, 박민, 박영옥 등(2012). 얼굴표정 자극에 대한 아동의 안면모방과 정서공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인지 및 생물**, 24(2), 433-452.
- 김혜숙, 황대향(2009). 초등학생 문제행동 체크리스트 개발 연구. **초등교육 연구**, 22(2), 123-138.
- 김혜원(2015). 남자 청소년을 위한 학교 기반 문제해결능력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노덕효, 이숙(2010).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공격성,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5(1), 85-102.
- 박가화, 이지민(2014). 부모의 양육행동이 남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9(4), 997-1013.
- 박미나, 은혁기(2013). 초등학생의 부적응행동 감소와 자아탄력성 증진을 위한 자기조절상담 사례연구. **초등상담연구**, 12(3), 327-348.

- 박선영(2018). 유아 정서능력증진을 위한 배경음악 활용 동화듣기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박사학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박수정, 김도연(2018).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한 집단 따돌림 예방프로그램의 효과. 발달지원연구, 7(1), 51-68.
- 박지현, 송하나(2011). 자기조절능력 증진프로그램이 유아의 인지 및 정서 조절능력과 외현적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연구, 31(1), 157-182.
- 박창선(2017). 아동의 환경요인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자기조절능력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서울한영대학교 대학원.
- 박현정, 홍나미, 정익중(2014). 방임과 학대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모, 교사, 친구애착의 매개효과: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6(4), 319-346.
- 박혜경(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조절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성상희, 홍창희, 김귀애(2014). 자기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남자 비행청소년의 자기 통제력, 충동성 및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2), 157-178.
- 송민영, 박현선(2017). 부모의 학대 및 방임이 아동의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빈곤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8(4), 195-215.
- 송효현, 정다우리(2014). 이혼 해체 부-자녀 가정과 양부모가정 간 아버지 역할수행과 가정환경자극 및 유아의 자기조절의 차이.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2), 35-58.
- 서혜전(2012). 방과 후 방치 아동의 공격성, 위축, 우울과의 관계에서 독서의 매개효과. 아동복지연구, 10(3), 24-41.

- 성다겸, 김춘경(2015). 초등학교학년 아동의 부-모애착, 또래애착, 교사애착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6(4), 129-142.
- 성상희, 홍창희, 김귀애(2014). 자기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남자 비행청소년의 자기통제력, 충동성 및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2), 157-175.
- 안관수, 황재연(2017). 초등학생의 의지력 향상을 위한 자기조절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융복합연구**, 15(1), 413-425.
- 여성가족부(2015).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여성가족부(20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여성가족부(2019).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양미나(2009). 타악기 연주활동이 중학생의 자기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양예슬, 문소영(2015). 즉흥연주 중심 창작음악극 활동이 교육복지특별지원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통합치료연구**, 7(1), 103-120.
- 우미향(2009). 한부모 가족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청구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윤수경(2011). 방과후 방치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은혁기(1999).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자기조절 집단상담이 청소년의 자기인식, 타인인식, 대인기술 및 대인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이경혜(2018). 빈곤, 자율적 학습행동역량, 스마트폰 의존이 아동청소년의

- 정서행동문제 형성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의 비교분석. **한국아동교육학회지**, 27(1), 5-21.
- 이나경(2011). **여성 한부모 가족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치료적 음악 만들기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슬아, 권석만(2017). 자기조절의 이론적 접근과 심리장애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6(1), 1-37.
- 이아련(2009). 그룹리듬악기연주활동에 따른 발달지체 유아의 모방능력에 관한 사례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6(2), 24-41.
- 이영주(2007).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인 연구: 아동의 자아개념과 부모, 교사, 친구의 관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은숙, 김홍렬(2009). 원예치료가 결손가정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인간식물환경학회지**, 13(1), 17-21.
- 이정자(2012). 자기조절능력 증진 프로그램이 방과 후 보육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16(1), 83-93.
- 이정혜(2004). **대상관계이론에 근거한 아동의 공격성 감소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주영(2008). 방입된 아동의 공격성과 분노 감소를 위한 분노조절 음악 프로그램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5(2), 17-39.
- 이지은, 문소영(2017). 타악기 연주활동이 제한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감소와 자아탄력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한국음악치료학회지**, 19(1), 93-116.
- 이진숙(2017). 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가족 서비스 지원 체계 효율화 방안 모색. **보건복지포럼**, 252(-), 78-91.
- 장명선(2016).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 8(1), 1-35.
- 장현희(2013). 자기조절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 장혜인, 박형인(2015). 아동의 자기조절과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1), 1-32.
- 전훈(2018). 관악 합주를 위한 타악기의 이해와 올바른 표기법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 정숙연(2008). 자기조절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충동성 및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현주(200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정현주(2011). 인간행동과 음악. 서울: 학지사.
- 조경애, 강경선(2014). 집단음악심리치료가 저소득층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예술교육연구**, 12(1), 85-103.
- 조미정(2012). 초등학생의 놀이성 및 자기조절능력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놀이치료연구**, 16(3), 53-69.
- 조수진(2016). 상호적 악기연주 프로그램이 자폐범주성장애 성인의 사회적 상호작용 기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3(1), 89-110.
- 주도범, 배홍, 최동규, 박정희(2015). 혼자 보내는 시간의 다소(多少)에 따른 저소득층 지역 초기 청소년의 자기만족도 및 자기조절능력 차이 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9(3), 107-124.
- 주빛나(2014). 악기연주 중심 음악치료가 시설보호 아동의 또래 유대감 증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지선례, 이숙(2012). 성별에 따른 이혼 한부모 가정 아동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자기조절능력 및 사회적 지지의 중재효과. **아동학**

- 회지, 33(4), 35-50.
- 진선남(2013). 집단놀이치료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청구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최단비, 김경성(2016). 초등학생용 자기조절력 척도의 구인동등성 검증 및 잠재평균분석. 한국초등교육, 27(3), 1-13.
- 최영미, 이희영(2017). 가정의 소득수준과 부모의 훈육방식 및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간의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9(1), 1-22.
- 최유경(2008). 저소득층 아동의 공격성 감소와 사회기술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계슈탈트 예술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윤정(2019). 여성 한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가족 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정책연구, 19(2), 49-66.
- 최윤진(2015). 한부모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12(3), 59-74.
- 최은주, 김춘경(2011). 정서표현과 정서조절을 강화하는 문학치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7(2), 209-235.
- 최혜주, 문수백(2012). 학령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구조분석. 아동학회지, 33(1), 23-40.
- 허정경(2003). 학령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척도 개발과 관련된 변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허정경(2007).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자기조절능력 연구. 아동복지연구, 5(4), 39-57.
- 황혜진(2018). 집단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청구논문.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

- 대학원.
- 한미현(201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취약가정 아동 집중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2(1), 177-200.
- 한지현(2005). 공격성 아동을 위한 음악치료-타악기 연주 활동 중심의 사례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2(2), 33-56.
- 홍상황, 박우람(2016). 아동의 거부민감성과 우울 및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자기조절의 조절효과. *초등상담연구*, 15(3), 233-256.
- 홍순혜(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17, 151-177.
- 홍은경(2014).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학년 아동의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 미술치료 사례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동국대학교.
- 홍주연(2017). 집단게임 놀이치료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기조절능력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21(1), 41-54.
- 황혜진(2018). 집단미술치료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 대학원.
- Alvin, J.(1977). The musical instrument as an intermediary object. *British Journal of Music Therapy*, 8(2), 7-12.
- Bandura, A.(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Oxford: Prentice-Hall.
- Brody, G. H., & Xiaoja, G.(2001). Linking parenting processes and self-regulation to psychological functioning and alcohol use during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1), 82-94.
- Bronson, M. B.(2000). *Self-regulation in early childhood: Nature and*

- nurture*. New York, NY : The Guildford Press.
- Bruscia, K. E.(1998). **음악치료의 즉흥 연주모델** (김군자 역). 서울: 양서원. (원서출판, 1987).
- Boxill, E. H.(1988). **발달 장애인을 위한 음악치료** (김태련, 염현경, 정현지, 김현정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원서출판, 1985).
- Cercone, K., Delucia-Waack, J.(2012). The effects of music and group stage on group leader and member behavior in psychoeducational groups for children of divorce. *The Journal for Specialists in Group, 37*(1), 29-55.
- Conger, R. D., Simons R. L., & Johnson C.(1994). Harsh corporal punishment versus quality of parental involvement as an explanation of adolescent mal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6*(3), 591-607.
- Crick, N. R.(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5), 2317-2327.
- Crick, N. R., Casas, J. F., & Mosher, M.(1997). Relational and over aggression in preschool. *Developmental Psychology, 33*(4), 579-588.
- Currie, M.(2004). Doing anger differently: A group percussion therapy for angry adolescent boys.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54*(3), 275-294.
- Davis. W. B., Gfeller, K. E., Thaut M. H.(2002). **음악치료학 개론**(김수지, 고일주, 권혜경 역). 서울: 권혜경 음악치료센터. (원서출판, 1999).
- Finkel, E. J., & Campbell, W. K.(2001). Self- control and accommodation in close relationships: an interdependence analysis.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2), 263-277.
- Fonagy, P.(2000). Attachment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8(4), 1129-1146.
- Gaston, E., T.(1968). *Music in therapy*. New York : Macmillan.
- Gfeller, K. E.(2000). Accommodating children who use cochlear Implants in music therapy or educational settings. *Music Therapy Perspective*, 18(2), 122-130.
- Gottfredson, M. R., & Hirschi, T.(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Knutson, J. F., Degarmo, D. S., & Reid, J. B.(2004). Social disadvantage and neglectful parenting as precursors to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and aggressive child behavior: testing atheoretical model. *Aggressive Behavior*, 30(3), 187-205.
- Matney, B.(2004). Percussion in music therapy: An instructional manual based on analysis of the related literatu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Texas Woman's University.
- Matney, B.(2016). The use of percussion in therapy: a content analysis of the literature.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25(4), 372-403.
- Montello, L., & Coons, E. E.(1988). Effects of active versus passive group music therapy on Preadolescents with emotional, learning and behavioral disorder. *Journal of Music Therapy*, 35(1), 49-67.
- Pellitteri, J.(2000). The consultant's corner: Music therapy in the special education setting. *Journal of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Consultation*, 11(3), 379-391.
- Seligman, E. M. P., & Csikszentmihalyi, M.(2000). Positive psychology:

-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1), 5-14.
- Vafa, M. A., & Ismail, K. H.(2009). Reaching out to single parent children through filial therapy. *Online Submission*, 6(2), 1-12.
- Warman, D. M., & Cohen, R.(2000). Stability of aggressive behavior and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Aggressive Behavior*, 26(4), 277-290.
- Weisz, J. R. & Hawley, K. M.(2002). Developmental factors in the treatment of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1), 21-43.
- Yalom I. D.(2008). **최신 집단 정신치료의 이론과 실제** (최해림, 장성숙 역). 서울: 하나의학사. (원서출판, 1985년).

# **ABSTRACT**

## **The effects of the Rhythm Percussion Ensemble-Based Group Music Therapy on the Aggression and Self-Regulation of Low-Income Single-Parent Family Children**

Yoo, Jihye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group music therapy based on rhythm percussion ensemble on aggression and self-regulation of children from low-income single-parent families. 9 children from low-income single-parent families who were attending S Community Children's Center in Chungcheongnam-do were purposeful sample. Music therapy was conducted from August 19, 2019 to October 10, 2019 at the local Children's Center for 45 minutes twice a week, 15 sessions in total.

The child aggression tests for teacher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 self-regulation test were conducted respectively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 of the program. To measure

the change of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the children's behavior was recorded by using (critical) incident method with one observer after filming the behavior of the children before, during, and after the intervention of the music therapy program, and the data for each behavior was collected. The data was analysed by Wilcoxon Matched-Pairs Signed-Ranks SPSS 18.0 program. In addition, in order to examine the qualitative changes in the self-regulation of children from low-income single-parent families,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the experiences of the participants after the end of the program, and sub-factors were derived and analyzed based on the content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re are statistically-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 overall scores of self-regulation of children from low-income single-parent families in the pre- and post-test of the group music therapy program based on rhythm percussion ensemble ( $p < .01$ ), and the overall score of aggression was significantly reduced ( $p < .01$ ). Also, the average number of aggressive behaviors of children from low-income single-parent families was also significantly reduced ( $p < .01$ ). According to this study, the children from low-income single-parent families experienced 'positive self-awareness', 'positive self-expression', and 'the sense of fellowship and the spirit of team work' among the factors of self-control capability through the group music therapy program based on rhythm percussion ensemble. Moreover, they experienced 'persistence' and 'relief of stress in the right direction' among the factors of aggres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roup music therapy program based on

rhythm percussion ensemble improves the self-regulation of children in low-income single-parent families, which can be an effective intervention plan for reducing aggression.

## 부 록

<부록 1> 일반적 특성 설문지

<부록 2>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

<부록 3> 자기조절능력 검사

<부록 4> 교사용 아동 공격성 검사

<부록 5> 초등학생용 공격성 검사

<부록 1> 일반적 특성 설문지

안녕하세요. 다음은 여러분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들입니다.  
문항을 읽고 해당하는 답변에 ○ 표시하거나 답안을 작성해주세요.

성별	남 / 여	학년		
생년월일	년	월	일	
1. 형제 또는 자매가 있나요?		예 / 아니오		
2. 형제 또는 자매가 있다면,		나는 _____명 중 _____째		
3. 어떤 음악을 좋아하나요?				
① 발라드	② 댄스	③ 팝	④ 힙합	⑤ 락
⑥ 클래식	⑦ 재즈	⑧ 종교음악		
4.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모두 작성해주세요.				
①	②	③	④	
5. 몇 살 때부터 지역아동센터에 다녔나요?				살
6. 음악치료를 받아 본 적이 있나요?		예 / 아니오		

성실히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

공격성 감소 및 자기조절능력 향상을 위한  
리듬타악기양상블 중심의 집단음악치료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

안녕하세요.

본 연구는 리듬타악기양상블 중심의 집단 음악치료가 아동의 공격성과 자기조절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8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주 2회 45분씩, 총 15회기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위의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며, 그 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하는 본 활동에 참여를 동의합니다.

보호자 \_\_\_\_\_ (인)

아동 \_\_\_\_\_ (인)

<부록 3> 자기조절능력 검사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어떤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지키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다른 친구들이 초대하지 않은 활동이나 게임에 끼어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혼자 흥분하거나 긴장이 되어 있을 때, 스스로 진정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먼 장래를 생각해서 계획이나 목표를 가지고 공부나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하던 일이나 공부를 끝낼 때까지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어른들의 지도나 지시를 잘 따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갖고 싶은 것을 당장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줄을 서서 기다릴 때, 나는 순서가 될 때까지 잘 참고 기다린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조용히 앉아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활동이 나 게임을 중단시키고 방해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만약 나 자신의 일에 좀 더 집중한다면, 지금보다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해 몇 번씩 생각하고 심사숙고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비난이나 꾸지람을 들었을 때, 말대꾸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말썽을 피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숙제나 할 일을 잊어버리거나 게을리 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문제를 해결할 때 침착하지 못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다른 사람의 것을 가로채서 사용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질서를 어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내가 가는 길을 주의해서 잘 살펴본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놀 때, 규칙을 지키고 차례를 잘 기다린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일이나 공부를 하다가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릴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지금 작은 장난감을 가질 것인지, 기다렸다가 내일 더 큰 장난감을 가질 것인지를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까?	전혀 기다리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잘 기다린다
25	나는 집단 활동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여 따르는 편인가? 아니면 내 생각을 고집하는 편인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타인의 의견을 따른다
26	내가 주의 깊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부주의 하다고 생각하는가?	매우 부주의하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주의 깊다
27	나는 질문에 대답할 때, 한 가지 대답을 신중하게 하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대답을 이것저것 하는가?	매우 여러 가지 대답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항상 한가지 대답을 한다
28	나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가? 아니면 이것저것을 하며 이리저리 옮겨가는가?	전혀 집중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매우 집중한다

29	만약 처음에 너무 어려운 과제가 주어진다면, 나는 곧 좌절하거나 그만두는가? 아니면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가?	매우 자주 그만둔다	주로 도움을 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어떤 일이나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그 정도가 매일 일정한가? 아니면 변화가 심한가?	매우 변화가 심하다	매우 일정하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질문한 후 그 대답을 기다리는가? 아니면 대답을 듣기 전에 다른 질문이나 행동을 하는가?	전혀 기다리지 못한다	잘 기다린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내가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가? 아니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나의 이야기를 하는가?	전혀 기다리지 못한다	잘 기다린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한꺼번에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는가?	매우 여러 가지 일에 매달린다	한가지 일에만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4> 교사용 아동 공격성 검사

번호	문항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매우 자주 한다
1	이 아동은 친구들을 차고 때린다.	①	②	③	④	⑤
2	이 아동은 친구를 위협하여 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3	이 아동은 다른 아이를 시켜서 시비를 걸게 하거나 공격을 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이 아동은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을 짓궂게 괴롭힌다.	①	②	③	④	⑤
5	이 아동은 다른 친구들이 한 행동을 놀린다.	①	②	③	④	⑤
6	이 아동은 친구들과 말다툼을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이 아동은 친구를 따돌리는 말을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이 아동은 고자질을 잘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이 아동은 학습 교재나 물품을 부러뜨린다.	①	②	③	④	⑤
10	이 아동은 친구의 소지품이나 학용품을 자주 던진다.	①	②	③	④	⑤
11	이 아동은 문, 의자, 책상, 교실 물품등을 발로 찬다.	①	②	③	④	⑤
12	이 아동은 문, 의자, 책상, 책꽂이 등을 손 또는 물건으로 세게 두들긴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5> 초등학교용 공격성 검사

번호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유 없이 친구들을 자주 괴롭힌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친구가 나에게 심하게 약을 올리면 그 친구를 때린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친구들을 위협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과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폭력을 써야 한다면 쓰겠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친구들에게 심한 장난을 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게임이나 경쟁에서 이기려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싸움을 진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주먹부터 나간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친구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 말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친구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이상한 소문을 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힘없는 친구들이나 실수한 친구들을 비웃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친구들이 내 말에 따라주지 않으면 욕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친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이유 없이 친구들에게 시비를 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만 늘 재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8	친구들은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힌다.	①	②	③	④	⑤
19	친구에게 이용당한다고 생각될 때가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친구들이 나에게 친절한 것은 나에게 뭔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당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친구들로부터 오해받을 때가 자주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친구들은 나에게 계속 시비를 건다.	①	②	③	④	⑤
24	친구들은 나를 자주 무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누가 잘난 체 하면 참을 수 없을 만큼 짜증이 난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내 뜻대로 안 되면 자주 토라진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시기나 질투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문을 꽂 닫을 만큼 화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만큼 짜증이 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의견이 다른 친구들에게 따지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